

12  
2022  
VOL. 318

# 한인뉴스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http://www.innekorean.or.id)





KB Bukopin

# KB Bukopin이 교민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 !!

## D'Star 프로그램

(Deposito Rupiah / 루피아 정기 예금)

- 프로그램 기간 : 2022년 10월 19일 ~ 2022년 12월 31일
- (개인/기업)신규 또는 기존고객에게 적용
- 최대 5.5% p.a 특별 금리 적용

개인 고객 :

상품	금리	
	6개월	12개월
Deposito + SiAga	5.00% p.a	5.30% p.a
Deposito + SiAga + Wokee (linked)	5.25% p.a	5.50% p.a

- Deposito 가입하고 SiAga 통장 (active)을 소유한 개인 고객에게 최대 5.3% p.a 특별 금리 제공
- Deposito 가입하고 SiAga 통장 (active) 소유 및 해당 SiAga 통장을 Wokee 어플에 사용 등록한 개인 고객에게 최대 5.5% p.a 특별 금리 제공
- IDR 8,000,000 부터 예금 가능

기업 고객 :

Tiering	예금 금액	금리	
		6개월	12개월
Tiering 1	IDR100.000.000 - < IDR2.000.000.000	5.00% p.a	5.30% p.a
Tiering 2	≥ IDR2.000.000.000	5.25% p.a	5.50% p.a

- 기업 고객의 경우 KB부코핀은행 기업입출금통장 (Tabungan SiAga Bisnis KB Bukopin 또는 Giro KB Bukopin) 보유 시 특별금리 제공 가능
-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특별금리 별도 구분 적용
- 모든 SiAga Bukopin 저축에 적용
- Fresh Fund를 통한 정기예금시 해당 프로그램 참여 가능
- 만기일 이전에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조건으로 패널티 적용

이자 지급 방법	패널티 메커니즘		
	기간	차단 해제	패널티
월 이자 지급 /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 지급	6개월	< 3 개월 ≥ 3 개월	0.75% Free
	12개월	< 6 개월 ≥ 6 개월	0.75% Free
선불 이자	벌금은 세금포함한 지급된 이자만큼 계산함		

## D'Star 프로그램

(Deposito Valas / 외환정기예금)

- 프로그램 기간 : 2022년 10월 19일 ~ 2022년 12월 31일
- (개인/기업)신규 또는 기존고객에게 적용
- Deposito Valas (외환 정기 예금) 상품에 적용  
(최소 예금 금액 USD 1,000)
-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최대 1.5% p.a 특별 금리 제공

금리		
3개월	6개월	12개월
1.10% p.a	1.30% p.a	1.50% p.a

- 예금 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입니다.
- Fresh Fund를 통한 정기예금시 해당 프로그램 참여 가능
- 만기일 이전에 정기예금을 해지하는 경우 0.75% 패널티 적용

**D'STAR PLUS**

UP TO 5.5%

19 OKTOBER - 31 DESEMBER 2022

- 신규 및 기존 고객에게 적용
- 최대 5.5% p.a. 금리
- 약관 적용



KB Bukopin

- KB Bukopin 은행은 2022.6월 Global 신용평가회사 Fitch 및 인도네시아 신용평가회사 Pefindo로부터 인도네시아 기준 최우량 등급인 "AAA" 신용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영업점 창구 방문, 콜센터 또는 아래 담당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 대표 영업점 주소(KB Bukopin 은행 본점 소재)  
KB Bukopin Head Office G Floor,  
JL. MT Haryono Kav. 50-51  
Jakarta Selatan Indonesia 12770
- 담당직원 및 연락처
  - \* 콜센터 (상담원 연결 : 14005)
  - \* 정철민 본부장 (코리아데스크 : 0821 1463 0602)
  - \* Ms.Siska Andini (본점 영업부 팀장 : 0819 0505 4922)



# Hyundai STARGAZER

## Bintang baru keluarga.



### 특별 금융 프로그램\* (2022년 12월 말까지 구매고객 대상)

유예 할부 (~3년):  
월 납입금 최저

**1.9** Juta\*

장기 저이자 할부 (~7년):  
월 납입금 최저

**2.8** Juta\*

저선수금 할부  
초기 선수금 최저

**30** Juta\*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멀리서도 보는 순간 존재감 빛나는 미래 지향적 디자인  
장거리 여행에도 걱정 없는 넓은 실내 공간과 실용적인 수납 공간  
첨단 커넥티드 카 서비스 현대 블루링크와 지능형 안전기술 현대 스마트센스까지

**현대 파이낸스의 부담 없는 특별 금융 프로그램으로 지금 만나보세요**

현대자동차 콜센터 (0-800-1-878-878), 한국어 서비스 3번 선택 / 한국 교민 전담팀 대응

[한국인 금융상담] Sunindo KB Finance : +62 813-1696-2061 왓츠앱 문의  
신한은행 : 1500881 또는 카카오톡 '신한인도네시아은행' 채널 검색





## 월간 한인뉴스 12 2022



표지사진: 2019년12월, 꼬망  
사진작가 조현영

###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박재한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박재한

**편집인** 김희년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표지 편집국**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G20 계기로 긴밀해진  
한-인니 경제협력

10

재인니한인회와 코참이 함께  
서부자바 지진피해자들을  
위한 성금모금에 나서

12

윤대통령 인니 한 기업인 간담회

14

김재훈의 '세무 TALK'  
"2022년 12월" 개인 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

16

배동선작가의 인도네시아  
현대사 이야기 60





# contents

2022. 12. 통권 318호

20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4

문법왕 〈민선희〉

28

[여기가 맛집!]  
Angke Restaurant-  
Ketapang 〈황지영〉

31

KOFA, 3년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32

[떠나야 보이는 것들]  
“인생은 output 아닌 input”  
〈손예리〉

34

[서평] 내년 트렌드 코리아는?  
트렌드 인도네시아는?  
〈조연숙〉

38

행복에세이  
소금강과 울곡의 발자취  
〈김준규〉

40

그 시절의 영웅2 〈최호열〉

44

로젠베르기황금귀신사슴벌레  
〈류은우〉

48

제12회 〈인도네시아이야기〉,  
제2회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문학상 발표

51

두 개의 시선 - 신이 내린 꽃  
〈헬른 하르소노〉

52

제8회 2022 한인청년회와  
옥타차세대 골프대회 및  
송년회 성료

53

언어발달의 비밀

54

제대로 이해하는 인도네시아  
고유명사 〈민선희〉

58

종근당 현지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59

곽영민, 인도네시아 태권도보급의  
성과

60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16)  
분쟁 해결 방법(4)  
〈이승민〉

66

생활정보



## “발리 G20 계기로 더 긴밀해진 한-인니 경제협력과 과제”



논설위원 신성철

지난 11월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이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한층 가까워졌다. 양국은 내년 2023년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가 임박한 만큼 경제는 물론 정치·안보 및 사회·문화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지난 11월 14일 발리에서 열린 한·인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KASI)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계획을 펼쳐 보였다. 상호보완적인 ‘한·인니’ 협력 모델을 다듬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다른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협력 다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이날 환담에서 “한국이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 전략에 최적의 파트너”라고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순방에 발맞춰 한·인니 정부와 민간은 디지털과 공급망, 기후변화, 개발·투자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한-인니 경험 MOU 개정(디지털 파트너십)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 △핵심 광물 협력 △인프라 개발 협력 등 총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 산업부와 인니 경제조정부가 채택한 ‘한-인니 경제협력 MOU’ 개정안은 그동안 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산업, 에너지, 무역협력 뿐 아니라 디지털 교역 원활화,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니는 동남아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시장이고, 한류 콘텐츠 최다 소비국이다. 또 디지털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LG CNS와 인니 신수도청은 ‘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MOU’를 체결해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신수도 이전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안보(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인니 중기부는 경제안보 협력을 위해 공급망, 스타트업 교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MOU’를 체결하고 향후 아세안 지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공급망, 스타트업/벤처캐피탈 교류, 중소기업 정책교류 등이다. 한국 광해광업공단과 인니니켈협회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 광물 공동 탐사, 광산 프로젝트 정보교류 등 양국 간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광물·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환경부와 인니 공공사업주택부는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아태지역, G20 주요 경제국 및 국제기구 등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가속화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국토부와 인니 교통부, 자카르타주 3개 기관은 ‘자카르타 도시철도(MRT, Mass Rapid Transit) 4단계 개발 협력 MOU’를 체결해 사업의 가속화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인니 도시철도 민·관협력사업(Private-Public Partnership)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 현대차는 인니 정부가 추진중인 동부칼리만탄 신수도 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니 신수도청 및 교통부와 ‘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AAM(Advanced Air Mobility)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 해양수산부와 인니 교통부는 ‘한-인니 해양 교통 협력 MOU’를 체결해 스마트 항만 등 해양 교통 인프라, 해양 교통안전 등 양국의 해양 교통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리 G20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첫날인 지난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새로운 대(對)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함께 공개한 한국판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아세안 외교당국간 전략대화 활성화,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해양법 집행 협력 확대, 아세안과의 연합훈련 적극 참여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에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제안하는 한편, ‘한·아세안 연대구상’추진을 위해 각종 관련 기금의 증액 방침도 밝혔다.

## CEPA 활용 방안과 신수도 사업 참여 등 정부 차원 지원 필요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CEPA 발효를 앞두고 있는 등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점프하고 있다. 이에 따라 CEPA의 철저한 이행과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핵심은 CEPA를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CEPA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심 미흡으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될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KITA) 등 주요 기관들이 현장 중심으로 홍보와 활용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하에 인도네시아측이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자국산 원자재, 특히 핵심 광물의 해외수출 금지 및 다운스트림(downstream) 산업 육성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로서도 이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전략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올해 2월 한국 산업부장관이 인니 방문시에 ‘핵심 광물 협력 MOU’를 인니측과 서명하고 지난 7월 한-인니 정상회담에서도 광물 분야 공급망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바 있다.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정부와 공기업 및 민간기업 등 삼각편대를 만들어 중장기적 차원에서 탐사, 개발, 가공 등의 일련의 생태계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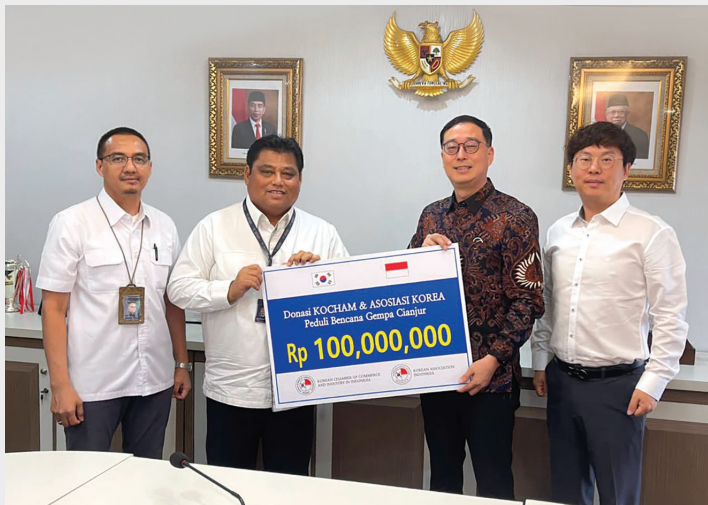
니켈은 물론,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등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처로서 인도네시아의 협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2030년에 세계 10대 산업국 진입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로드맵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을 마련했으며 한국 등 선진국 등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식음료, 섬유·봉제, 자동차, 화학, 전자 등 5대 주력 제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한다는 계획인 만큼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양국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해 2019년부터 G2G협력을 통해 신수도 스마트시티 계획 및 개발 종합계획 등 분야별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경험을 공유하며 양국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확대해 인도네시아의 신도시 건설에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기업의 뛰어난 스마트 시티 건설 기술 등을 인도네시아 신수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기존의 양국 정부간 협의체들은 아직 2차 산업(제조업 중심)위주로 협의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전자상거래 시장이자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간 협의와 지원체계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내에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유관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복합적인 분야인 만큼 총체적인 대응을 위해서 종합적인 대응과 협의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





11월30일, 무역부 Pohan 수입국장(Sihard Hadjopan Pohan, S.H., M.M.)실에서  
성금을 전달하는 코참 이강현 회장과 정제의 사무총장

## 재인니 한인회와 코참이 함께 서부 자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모금에 나서

지난 11월 21일, 서부 자바 짜안주르를 강타한 지진으로 11월 26일 기준 사망자가 310명, 실종자가 24명에 이른다. 아직도 여진과 악천우의 불안함 속에 힘들어하는 이재민들을 위해 재인니한인회(회장 박재한)와 코참(회장 이강현)은 다음날인 22일부터 28일까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벌였다.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위로를 전하는 한인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져 SK E&S 2억루피아,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LG전자 인도네시아, LX 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각 1억루피아, 재인도네시아 한인중소기업협의회 1억 3백만루피아를 비롯하여 짜안주르 이재민을 위한 성금 총 11억3천7백루피아와 어린이방역마스크 20만장, 티셔츠 661장이 모였다.

모인 성금 11억3천7백루피아중 10억루피아와 지원 물품은 서부 자바 리드완 까밀 주지사에 게 전달하였고 1억루피아는 무역부로부터 지진피해 지원요청을 받아 한인기업 수입허가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사용됐다.

코참 이강현 회장은 “이웃인 서부자바 지역의 지진피해로 고통받는 이재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보내 주신 코참 회원사를 비롯한 한인 사회에 감사드린다” 며 “모인 성금과 물품들은 빠른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위해 잘 사용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 코참 짜안주르 지역 지진피해 기부 내역

(기간 : 11.22~11.28)

NO	회사명 / 성함	성금액 (IDR)	일자
1	PT. ACCENTUATES	10,000,000	11/22
2	PT. PRIME FREIGHT INDONESIA	10,000,000	11/22
3	PT. SUNGCHANG INDONESIA	20,000,000	11/22
4	SONMINJI	200,000	11/22
5	SUNGTAE HA	500,000	11/22
6	BOK DUG GYOU	1,000,000	11/22
7	KIM BYEONG CHUL	5,000,000	11/22
8	NO NAME	1,000,000	11/22
9	PT. JAY DEE INDONESIA	1,000,000	11/22
10	PT. PLATECH MOLD INDONESIA	10,000,000	11/23
11	PT. DONGJUNG INDONESIA	10,000,000	11/23
12	PT. POWERTECH	15,000,000	11/23
13	PT. ITL	10,000,000	11/23
14	LAWFIRM INDOYANG & PARTNERS	5,000,000	11/23
15	PT. ALPHA TOY INDONESIA	5,000,000	11/23
16	PARK WO YONG	500,000	11/23
17	SHIN HYUN MAN	2,000,000	11/23
18	PT. ZIMMOAH MARINE TRANS	5,000,000	11/23
19	PT. LEMBUSWANA PERKASA	10,000,000	11/23
20	PT. DONG SAN HOLDING	5,000,000	11/23
21	PT. SUNSHINE TECHNICA IND.	10,000,000	11/23
22	LEE JISUN	3,000,000	11/23
23	PT. GORI GLOBAL INDONESIA	10,000,000	11/24
24	PT. PETRASAKTI	10,000,000	11/24
25	HYUNYOUNG CHO	1,000,000	11/24
26	SK E&S	200,000,000	11/24
27	RYU HEUISEUNG	500,000	11/24
28	PT. KEUMKANG SEMYU INDONESIA	5,000,000	11/24
29	PT. SHINTA WOOSUNG	30,000,000	11/24
30	PT. CHANCHAN FNB	10,000,000	11/24

NO	회사명 / 성함	성금액 (IDR)	일자
31	CHUNG HUN	5,000,000	11/24
32	JEON CHEOL HO	1,000,000	11/24
33	PT. GARUDA TWIN JAYA	30,000,000	11/24
34	PT. YOUME INDONESIA	5,000,000	11/24
35	NO NAME	200,000	11/24
36	NO NAME	200,000	11/24
37	INNI TODAY	2,000,000	11/24
38	WOORI CONSULTING	10,000,000	11/24
39	KOFA	20,000,000	11/25
40	PT. BUSAN LASER INDONESIA	10,000,000	11/25
41	PT. MITRA CMB INDONESIA	50,000,000	11/25
42	PT BIPA MUSIC INDONESIA	5,000,000	11/25
43	LX INTERNATIONAL INDONESIA	100,000,000	11/25
44	PT. DONGSUNG JAKARTA	30,000,000	11/25
45	KOSA	103,000,000	11/25
46	PT. HANYOUNG INDONESIA	10,000,000	11/25
47	KIM BORA	2,000,000	11/25
48	PT. ING INTERNATIONAL	10,028,000	11/25
49	PT. DONGJOO JAYA TEHNIK	3,000,000	11/25
50	PT. DUNIA MARKETING BUDDY	10,000,000	11/25
51	PT. JINYOUNG	10,000,000	11/25
52	IBK	30,000,000	11/25
53	TSE Group	20,000,000	11/25
54	PT. ACMI	20,000,000	11/25
55	PT. JAVA PALACE HOTEL	10,000,000	11/25
56	PT. ROYAL PUSPITA	10,000,000	11/25
57	PT. DAYUP INDO	15,570,000	11/28
58	SAMSUNG ELECTRONICS IND.	100,000,000	11/28
59	LG ELECTRONICS INDONESIA	100,000,000	11/28
60	PT. HANINDO EXPRESS	10,000,000	11/28
총액		1,137,698,000	

## 물품 기부 내역

NO	회사명/성함	물품내역	날짜
1	MULTI PLUS ONE	어린이방역마스크 20만장	11/22
2	PT. F1 LOGIX	물품 배송 지원	11/22
3	PT. ING INTERNATIONAL	티셔츠 300장	11/25
4	PT. JUNO FASHION	여성용 티셔츠 361장	11/26

# 한인회 건강검진 결과 비대면 상담 안내



## ● 검진 결과 비대면 상담이란?

해외 출국 후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MJ Virtual 앱을 이용하여 전문의와 결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내 체류기간 동안은 전화 예약을 통해 방문 결과상담 가능, 종합검진센터 031-810-6880)

## ● 상담비

별도의 원격 서비스 이용료 없이 건강검진 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 의료진 및 비대면 상담 일정



**서용성** 내과 전문의

진료 : 매주 월요일, 수요일



**조동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진료 :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반검진 결과 상담은 의료진이 검사 결과를 검토 후 상담이 가능하므로 예약 신청하신 날짜 3일 후부터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 월요일에 예약하시는 경우 목요일 이후부터 상담 가능)

## ● MJ Virtual 비대면 상담 방식

1. 구글 플레이스토어/iOS 앱스토어에서 MJ Virtual 검색 후 다운로드 합니다.
2. 본인 인증을 통하여 MJ Virtual 회원가입을 합니다.
3. 건강검진 결과 상담 선택 후 비대면 상담을 예약합니다.
4. 문진표 작성 및 증상 란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입력합니다. (선택)
5. 예약된 시간에 비대면 상담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J Virtual 앱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사용방법**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마이페이지 ▶ 1:1 문의**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 대통령, 인니 韓기업인 간담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인들이 양국관계 발전 이끌어...도전정신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인니 현지 진출 기업 오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현지 진출 한인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번 행사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이 기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리 시내 한 호텔에서 9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는 한인상공회의소, 한인무역인협회 등 현지 주요 경제협의회 회장들과 코린도(목재·팜유), 로얄수마트라(방산·호텔·의료기기) 등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대표 기업인들 및 스틸리언(사이버보안), 휴먼스케이프(의료플랫폼) 등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내 유일한 G20 국가로서 지난 1973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 양국 교역량이 100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대차·롯데 등 20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한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 규모는 아세안 내에서 4위, 투자 규모는 아세안 내 3위를 차지하는 등 현재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

으며 인-태 지역 내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에도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이 큰 국가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중요 지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만큼 현지에 진출한 한인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챙겼으며, 현지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우리 섬유·봉제 기업들이 일찍부터 진출한 곳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고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국가들 중 하나로 각별히 신경을 쓰는 지역임을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다양한 애로와 건의 사항들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내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만큼 K-팝 지원 등 정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많은 지원기관들이 진출해 있는데 분산돼 지원하기보다는 통합된 합동센터를 만들어 정부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또 한국 정부와 은행들이 한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등을 지원하는데 현지 한국기업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할 때가 많으면서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동포기업들에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건의했다. 한 기업인은 지난 7월 한국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한 사이버보안 행사 간담회에도 참여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밝히며,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간 협력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기업인들의 이러한 요청과 제안 사항에 대해 함께 참석한 경제부총리,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리고 건의한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앞서 섬유·봉제 등 분야 인도네시아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인들이 현재 양국 관계의 발전을 이끌었음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ICT, 헬스케어 등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젊은 기업인분들을 뵈니 도전 정신에 감사드린다” 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기회가 된다면 인도네시아 정상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우리 기업들이 이를 계기로 사업활동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2022년 12월" 개인 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올 한 해도 한 달을 남겨 두고 있다.

2022년도 개인소득세 신고는 2023년 3월말까지인데, 실질적으로 개인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거나 상담을 받다 보면, 12월에 예금 잔고를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등 후회를 하는 것을 보곤 한다.

인도네시아 개인소득세 신고의 주요 특징은 연간 소득뿐만 아니라 12월 31일 현재 개인 재산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 개인 소득세 신고서 요약

연간 소득(국내외)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과표

소득세율

소득세

재산

(채무)

순재산

기말순재산

(기초순재산)

순재산증가액

연간 소득이 순재산 증가액보다는 클 수는 없다. 순재산증가액이 연간 소득보다 많다는 것은 비과세 소득이나 과세 소득이나 어떠한 형태의 소득을 누락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순재산 증가액이 연간 소득보다 크다고 하면 어떻게 하던 재산을 은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2월에는 금년 소득이 얼마이고, 현재의 재산과 채무상황을 고려하여 정리를 해야 한다.



특히 해외 금융 자산의 경우에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AEOI)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2020년 인니 세무 당국은 AEO를 통해 7500만 금융계좌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에 신고되지 않는 자산인 해외 금융계좌가 인니 국세청으로 전달될 경우 탈루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12월은 법인이 임직원 개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정산하는 달이기도 하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12개월을 곱하여 연간 소득으로 추산하여 갑근세(PPh21)를 계산하지만 12월은 연간 소득이 확정되는 달이기에 1월부터 11월까지 신고한 급여에 12월 급여를 더하여 연간 소득을 확정한다. 확정된 연간 소득에 따라 갑근세를 계산한 후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갑근세를 공제하고 차액에 대해서 납부 또는 환급이 진행되는 달이기도 하다.

PPh21 계산시 소득공제(PTKP)를 하는데 납세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초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 조항은 소득세에 관한 법률 UU No. 36/2008 제 7조 2항에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장령 PER-16/PJ/2016 에서도 역년 초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납세자는 배우자가 있었는데 2022년 3월에 자녀가 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2022년 소득공제액은 A 납세자 IDR 54,000,000과 배우자 IDR 4,500,000 만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고 2022년 3월 출생한 자녀는 2023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흔히들 2022년 3월에 출생하였기에 2022년 3월 소득세 신고부터 자녀 공제를 하는 오류를 범하는데 상기 규정에 명확히 언급하고 있기에 2023년 1월부터 자녀 공제를 하여야 한다.

PTKP 금액은 아직까지도 2016년 공고한 재무부장관령 PMK 101/PMK.03/2016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개인납세자 IDR 54,000,000

배우자 추가 IDR 4,500,000

혈족 및 직계 가족으로 부양 자녀 1인당 IDR 4,500,000 이며 최대 3명까지 적용된다.

인적 사항을 Status 로 표시하고 개인 납세자만 있는 경우 즉 미혼인 경우 TK/0 로 표시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K/0, 배우자 및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K/1, 자녀가 2명이면 K/2, 3명이면 K/3 로 표시된다.

여기서 TK는 Tidak Kawin, K는 Kawin 로 배우자 여부를 표시하고 / 이후 0,1,2,3 으로 부양 자녀 수를 표시한다.

배우자 및 부양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여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끝>



9월 30일 쿠데타 희생자들의 장례식에서 눈물 흘리는 수카르노



칼리바타 영웅묘지의 기독교인 묘역(상)엔 반자이판 중장과 떼데안 대위가 누워있고 나머지 장성들(야니, 수브랍토, S. 빠르만, 수또요, MT 하리요노)은 이슬람 묘역(하)에 누워 있다.

### 지난호에 이어

죽자에서는 072 군휴양소장 까맘소 대령과 참모장 수기요노 중령은 PK에 의해 10월 1일 오후 납치되었는데 혁명대표부에 가입하라고 위협받았으나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 살해당했다. 이들 역시 자카르타에서 희생당한 장성들과 나란히 9월 30일 쿠데타의 희생자로 이름을 올렸다.

납치된 장성들의 시신은 10월 3일 할림공군기지 인근 루방부아야의 폐우물에서 수습되어 10월 5

일 성대한 장례식이 거행되었고 피해자 전원에게 일제급 특진이 추서되었다.

이 사태는 공산쿠데타였고 독립전쟁의 영웅들이고 고위 장성들을 살해한 것은 비겁한 적대행위였다. 군의 선전공세가 1965년 10월 초 인도네시아 전역을 휩쓸었다.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별다른 의심없이 이 내용을 사실로서 받아 들었다.





루방부아야 시신수습 현장의 수하르토 장군

사실 공산당 당수 DN 아이딩이 10월 1일 할림공군기지에 와 있었고 9월 30일 쿠데타 이전 제5의 군대창설 문제로 군과 공산당 사이에 갈등이 첨예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날 쿠데타가 과연 공산당이 저지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쿠데타에 동원된 것은 공산당 노동적위대가 아니라 짜끄라비라와 대통령 경호부대와 밤방 수빠노 소장, 수빠르조 준장 등이 지휘하던 인도네시아 육군 정규군들이었으며 대통령 경호단장 운똥 중령이 라디오방송을 통해 발표한 혁명대표부 역시 공산주의 색채가 매우 짙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실 DN 아이딩 공산당 당수와 PKI 공산당을 제외하고 본다면 국가권력을 놓고 군내 대통령파와 강경파가 충돌한 것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석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KI 공산당은 쿠데타 연루를 부인했으나 아무 소용도 없었다. 정부와 언론은 모든 것이 공산당의 소행이라며 몰고 갔고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후원국이라 여겨지던 중국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면서 공산당원들은 물론 일반 화교들까지 전국적으로 학살당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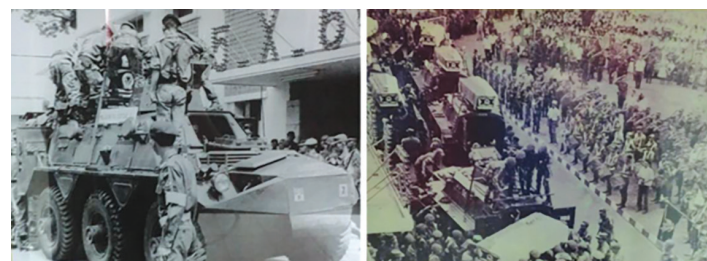
10월 5일 장성들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른 후 군은 물론 양대 이슬람 조직인 무함마디아와 나들라툴 울라마(NU)는 합동공세를 펼쳐 인도네시아의 정부와 군, 그리고 사회에서 공산당과 좌익세력들을 척결하기 시작했다. PKI의 지도자들은 즉시 체포되어 처형당했고 아이딩도 체포되어 1965년 11월 같은 운명을 걸었다. 이 공산당 척결운동은 무자비한 학살의 형태로 자바와 발리를

휩쓸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군이 민간조직과 민병대들을 조직해 움직였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군이 움직이기도 전에 민간자경단들이 먼저 무력을 사용했다. 가장 믿을만한 통계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약 50만 명 정도가 공산당원이나 동조자로 몰려 살해당했고 150만 명이 투옥되었다고 전해지나 일각에서는 사망자만 300만 명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

이 척결운동의 결과로서 수까르노 정권을 지탱하던 세 개의 배경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다른 두 개의 세력인 군과 이슬람 정치권에 의해 완전히 와해되면서 나사콤 체제가 무너져 내렸다. 수까르노 자신도 측근들의 죽음과 알박한 ‘혁명’ 실패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는 납치되어 살해된 장군들에 대해 ‘혁명의 바다에 일었던 작은 파도’라고 일축하며 마지막까지도 PKI를 두둔하려 했으나 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었다. 그는 1966년 1월 방송을 통해 국가가 자신을 따라 줄 것을 촉구하는 연설로 영향력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수반드리오는 별도의 수까르노 전위대를 창설하려 했지만 그들의 시도는 모두 무위에 그쳤다.



루방부아야 시신수습 현장



장갑차를 사용한 운구행렬



나수티온장관(좌)과 수하르토장군(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수카르노의 앞길엔 이제 나락으로의 끝없는 추락만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매우 음습하고도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 수퍼스마르

수하르토가 쿠데타 진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으나 육군 고위장교들은 수하르토가 전권을 쥐는 것보다 나수티온이 계속 지휘권을 유지하며 보다 단호하게 상황을 통제해 주기를 기대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다.

그러나 나수티온은 그 민감한 시기에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므로 그를 지지하던 세력들도 하나 둘 떠나 수하르토로 옮겨타기 시작했다. 10월 2일 수하르토의 정부군은 반란군 진압승리의 환호를 외치고 있었지만 정작 국방장관 겸 전군사령관 나수티온 장군 본인은 쿠데타 당일 피격당해 10월 6일 결국 숨을 거둔 막내딸 이르마를 잃은 슬픔에 하늘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며칠 사이에 수하르토 장군은 아무런 방해도 없이 인도네시아의 권력 대부분을 손아귀에 틀어쥔 수 있었다. 육군사령관의 직책은 1965년 10월 1일 프라노토 렉소사무드라에게서 2주 후 수하르토에게 넘어갔다. 9월 30일 쿠데타 후 나수티온이 2주일동안 수하르토를 육군사령관에 앉히도록 수카르노를 줄곧 중용한 결과였다. 수카르노는 수하르토에겐 신설 사령부인 법질서회복본부(Kopkamtib) 사령관 정도를 주려 했으나 나수티온의 강권에 떠밀려 결국 1965년 10월 14일 수하르토를 육군사령

관에 앉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수카르노는 9월 30일 쿠데타 당시의 수상한 행적으로 군과 정계의 불신을 키우면서도 좀처럼 정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쳤다.

9월 30일 쿠데타 직후 자카르타의 학생들은 ‘인도네시아 대학생 행동연맹’ (KAMI)을 조직하고 PKI 공산당의 해체를 요구하며 데모를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유사한 조직들을 규합하더니 곧 고등학생, 회사원, 예술가,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결집시켰다. 이 데모대는 PKI 해체 외에도 치솟는 물가와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이슈에 목청을 돋웠다. 그들은 수카르노 정권의 2인자이며 외무장관이자 인도네시아 정보기관 BPI의 수장이었던 수반드리오도 격렬히 비난했다.

- PKI 공산당 해산
- 내각에서 9월 30일 쿠데타 및 PKI 관련자 축출
- 물가인하와 경제개선

이것은 1966년 1월 10일 KAMI를 비롯한 데모대들이 국회앞에서 데모를 하며 발표한 트리투라 (Tritura)라 부르는 ‘국민의 3대 요구’ 였다. 1966년 2월에도 반공시위가 줄을 이었고 수카르노는 수하르토를 달래려는 듯 그의 어깨에 별을 더 달아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국농단의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새 내각 명단을 2월 21일



수카르노 대통령과 얘기하면서도 어딘가 여유있어 보이는 수하르토 장군(우)





9월 30일 쿠데타 연루혐의로 1966년 사형선고를 받는 수반드리오 전 외상

발표했다. 그의 내각엔 쿠데타 당일 할렘공군기지에 모여있던 소극적 공모자 그룹의 전공군사령관 오마르 다니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는 쿠데타 지지성명까지 냈던 인물이었다. 수카르노는 이에 그치지 않고 나수티온 장군을 국방장관에서 해임하며 군과 각을 세웠다. 국민들은 즉시 이 내각을 게스파뿌(Gestapu) 내각이라 이름 붙였는데 이는 9월 30일 쿠데타(GErakan September TigAPIU)에서 차용해 온 신조어였다.

사족이지만 사실 나수티온에겐 1965년 12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었다. 모하마드 하타가 물러난 후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던 부통령직을 제의 받았던 것이다. 수카르노는 추락 중이었고 수하르토의 입지가 아직 완전치 못하던 시절, 그가 부통령이 되어 일정 역할을 해낸다면 수카르노의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 대통령에 등극할 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휘하의 많은 장성들과 부관 펜데안 중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 이르마를 쿠데타로 잃은 나수티온은 동력을 잃은 듯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동안 마침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력을 거머쥔 수하르토가 1966년 초 부통령 공석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성명을 내면서 나수티온이 권력의 정점으로 나아갈 천금 같은 기회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이번 개각으로 수카르노가 그를 국방장관직에서 실각시키고 전군참모총장이라는 그의 직위조차 폐지하려 하자 나수티온은 사임을 거부하며 항명했으나 이미 었질러진 물이었다. 물론 그 배경엔 그

를 정적으로 인식한 수하르토의 입김이 서려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개각 이틀 후 대규모 시위대가 대통령궁에 몰려들었고 다음 날 새 내각이 임명장을 받고 있는 동안 군인들이 시위대에 발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여기서 목숨을 잃은 아립 라흐맛 하킴이라는 학생은 순식간에 정치적 순교의 아이콘이 되었다. 3월 8일 학생들은 외무성에 쳐들어가가 다섯시간 동안 점거농성을 벌였다. 그들은 쿠데타로 장군들을 살해한 원흉으로 수반드리오를 지목하며 외무성 벽에 그를 베이징의 주수로 표현하거나 교수대에 매달린 모습으로 낙서를 그려놓기도 했다. 수카르노는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3일간의 마라톤 회합을 기획하고 그 첫날인 3월 10일 각 정당 지도자들을 설득해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생시위대에 대한 경고선언문에 서명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다음 날인 1966년 3월 11일 독립궁에서 전체각료회의가 열렸는데 학생들에 의한 반정부시위가 계속되던 가운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부대들이 독립궁 외곽에 집결하기 시작하자. 위협을 느낀 수카르노와 수반드리오, 그리고 다른 장관들은 즉시 회의장에서 빠져나가 헬리콥터를 타고 보고르궁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바수키 라흐맛. 아미르 마흐무트, 모하마드 유승등 수하르토를 지지하는 장성들이 보고르궁에 나타나 수카르노로부터 수퍼스마르(Supersemar)라고 불리는 대통령 명령서를 받아냈다.

이 문서는 수카르노가 수하르토에게 ‘치안과 안녕, 정부와 혁명의 지속적 안정을 담보하고 (수카르노 개인의) 안전과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백지수표와 같은 이 문서를 실제로 누가 작성했는지, 당시 장안에 파다하던 소문처럼 정말 장성들이 수카르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서명을 강요했는지의 여부 등은 아직도 역사적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이다.

다음호에 계속

<경제 비즈니스>

## “조코위가 G20 국가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분야들”

### “조코위, 성장과 투자의 유산 남기고 싶어해”

지난 11월 15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인프라 개발부터 탄소 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내년 에 동부 칼리만탄에 신수도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 340억 달러를 포함해 총 890억 달러의 신규 자본 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임기를 수행 중인 조코위 대 통령이 목표를 이루려면 선진국의 자금과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전략연구센터(CSIS)의 요세 리잘 다무리 대표 는 조코위 대통령이 성장과 투자를 유산으로 남기 길 원한다며, G20 의장 수행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와 외교 역량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았다. 인도네시아가 G20 정상회에서 발표할 거래 목록 은 다음과 같다.

### 석탄의 단계적 폐기

인도네시아는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투입할 자금을 이번에 선진국과의 거 래에서 충당하길 희망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량 폐기하고, 5 년 후에는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100%로 높이겠 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의 내각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 반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기 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아시아개발 은행(ADB)은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 하기 위해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도 비슷한 계획을 연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석탄 의존도를 낮추 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길 원한다.

### 디지털 화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과 함께 약 3억8,400만 명이 QR코드 스캔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불 시스템을 연결하는 거 래에 이달 말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시스템은 중개자로서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도 현지 통화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의 51.8% 만 금융 계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주요 경제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조 코위 대통령은 G20 의장국 임기 동안 인도네시아의 금융 포용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BI는 또한 연말까지 디지털 루피아의 개념적 디자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페리 와르지요 BI 총재 가 말했다. BI는 지불수단으로써 전세계적인 디지털 화폐를 채택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디지털 루 피아를 연구하고 있다.

### 철도

루훗 빠자이판 해양투자조정장관에 따르면, 조코 위 대통령은 11월 16일 발리에서 열리는 줌 화상 회의에 시진핑 중국 주석을 초대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80억 달러를 지원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시운전을 줌 화상 회의를 통해 중계했다. 중국개발은행(Chinese Development Bank Corp.)과 중국철도국제유한회사(China Railway International Co. Ltd.)가 자카르타-반둥 고속 철도 건설을 지원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자카르타 MRT 지하철 프로젝트에 188조 루피아(미화 120억 달러)를 투자할 외국인투자자를 찾고 있다. 부디 까르야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일본, 한국, 영국 등이 자금을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탄소 거래

재무부 전문관 마샤파 크리스탈린은 정부가 탄소 시장, 탄소세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로드맵을 G20 정상회담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네시아는 206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세와 탄소 거래 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로드맵은 새 규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2025년 운영을 목표로 증권거래소에 탄소 거래소를 설립하도록 지시했다.

## 문화예술을 사랑한 재벌 찌뿌트라

회사와 건물 이름에 붙여진 ‘찌뿌트라’ (Ciputra)라는 고유명사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인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인데,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손꼽히는 재벌의 이름이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찌뿌트라(1931~2019)는 사업가이면서 건축가이지만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고 독지가로 유명하다. 인도네시아 롯데쇼핑에비뉴는 자카르타 메가꾸닝안 지구에 위치한 찌뿌트라 월드 자카르타(Ciputra World Jakarta) 복합단지에 위치해 있어 한인들에게는 더없이 익숙하다.

찌뿌트라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부동산개발 회사 중 하나인 찌뿌트라그룹의 설립자로 지금은 자카르타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찌뿌트라개발(Ciputra Development) 등 다수 계열사가 있으며, 수라바야에 실무 중심의 종합대학인 찌뿌트라 대학교(Ciputra University of Entrepreneurship)와 박물관과 공연장을 갖춘 예술회관인 찌뿌트라 아트프리뉴어 뮤지엄(Ciputra Artpreneur Museum)을 운영하고 있다. 찌뿌트라는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인 헨드라 구나완의 작품 130여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일부를 찌뿌트라 월드 자카르타 뮤지엄에 전시하고 있다. 찌뿌트라는 헨드라 구나완의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한 아트 콜렉터이다.

찌에찌호안(Tjie Tjin Hoan, 徐振煥)이 본명인 찌뿌트라는 네덜란드 식민지배 시기인 1931년 중부 술라웨시주 빠리기라고 불리는 소도시에서 중국

푸젠성 장저우시 출신인 아버지 찌에심포에(徐沈步)와 어머니 리에앵니오(李英娘)의 셋째로 태어났다. 찌뿌트라의 아버지는 일본이 점령한 직후 네덜란드의 식민정부의 첩자 혐의로 체포된 후 감옥에서 숨져 찌뿌트라는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낸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학업을 재개해 북부술라웨시 주도 마나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반둥 공대(ITB) 건축학과에 입학해 1960년에 졸업한다. 그는 대학교 재학 중인 1956년 중국이름에서 찌뿌트라로 개명한다. 대학교를 졸업한 찌뿌트라는 당시 자카르타 주지사 수마르노 소스로앗모조의 신임을 얻어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설사 뽀방운안 자야(Pembangunan Jaya)의 총책임자가 된다. 안폴공원과 스닌시장 등 35년 동안 찌뿌트라는 많은 경험과 경력을 쌓는다.

공직생활을 마친 찌뿌트라는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4명의 자녀들과 함께 1980년대 초 찌뿌트라그룹을 설립하고 서부 자카르타에 뉴타운 형식의 찌뜨라 가든 시티(Citra Garden City)를 건설했다. 이후 수라바야 찌뜨라 라야 등 30여건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수주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건설사 가운데 하나로 성장한다.

찌뿌트라는 2018년 총 재산이 12억 달러로 인도네시아에서 27번째 부호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나 2019년 88세를 일기로 싱가포르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수도 이전의 함의

신수도 이전은 홍수와 인구과밀 문제를 완화하는 것 외에도 경제·지정학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식민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수도를 옮겨왔다. 지난 3세기 동안 바타비아(자카르타의 옛이름), 반둥, 족자카르타, 부키띵기(Bukit-tinggi), 다시 자카르타 그리고 마침내 새로 개발하는 누산타라까지 꽤 다사다난한 여정을 거쳤다. 2019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부 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2022년 인도네시아 의회(DPR)는 이 제안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는 인구과밀과 빈번한 홍수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어로 ‘군도’를 의미하는 ‘누산타라’는 전략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의 야망을 반영한 이름이다.

동부 칼리만탄을 수도 이전지로 선택한 결정은 그 이유를 궁극하게 만든다. 새 수도 예정지인 동부 칼리만탄은 인도네시아 군도 중앙에 위치하고,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빈번한 지진, 화산 폭발 또는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인도네시아는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수도를 동부 칼리만탄으로 옮기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술라웨시해, 아라푸라해, 태평양 등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바다에 더 가까워진다.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해양 거점’이 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세안 관점을 형성하는데 있어 역할을 하고 싶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역에 있는 나투나(Natuna)섬과 그 주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과 더불어 누

산타라 개발은 해양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는 인도네시아의 목표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또한 매우 교통량이 많은 말라카 해협을 대체 항로로 자리 잡고 있는 마카사르 해협을 따라 위치하므로, 전력적 및 연결성 매개변수 관점에서도 수도 이전은 해상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수하르소 모노아르와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수도 이전에 관한 법안을 작성하면서, 새 수도는 중심 기능을 하고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자 새로운 경제적 무게중심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과 군인을 누산타라에 배치하면, 여러 산업과 행정 주변부를 형성하면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일으키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유발하는 등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은 인도네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국가에서도 사업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동부의 보르네오섬 북부 지역 영토인 사바(Sabah)주와 사라왁(Sarawak)주처럼 누산타라에 가까이 위치한 지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망이 밝다. 누산타라에서 가까운 사바주는 수도 이전으로 거대한 시장을 갖게 될 것인 한편, 사라왁 주는 이미 인도네시아 측과 연계를 구축하는데 큰 진전을 이뤘다.

사바 주와 같은 말레이시아 영토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전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동부 칼리만탄 지역은 주요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는 국가 카보타지(cabotage) 정책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 사바는 누산타라 개발로 거대한 시장을 갖게 될 것이다. 카보타지는 연안 해운을 비롯하여 자국 영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해양 작업에 외국 선박을 배제할 수 있는 원칙으로, UN 해양법으로 협의된 원칙이기에 대부분의 나라가 도입 중이다.

올해 초 말레이시아 총리실에서 사바와 사라왁 문제를 담당하는 맥시무스 옹킬리와 경제 부문을 담당하는 무스타파 모하랏 보좌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동부 칼리만탄을 방문해 이런 기회를 모색했다. 신수도를 보호하기 위한 안보 조치가 필요하고, 이런 조치가 역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술라웨시와 술루 해역은 이미 안보 문제가 부상한 지역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당연히 신수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이 지역의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근 술라웨시해와 술루해에 보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불법 복제, 밀수 및 몸값을 노린 납치의 중심지였고, 밀수, 불법이민, 및 아부 사이프 반군 등은 3국이 연계된 문제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2017년에 3국협력협정(TCA)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가 수도 이전하고 이 지역에 안보를 강화한다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도 경계를 강화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안보 영역의 발전은 경제 통합과 성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안전한 영역을 형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은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동아세안 성장 지역(Brunei-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BIMP-EAGA)

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다. BIMP-EAGA 이니셔티브는 1994년 제안됐지만, 시장이 작고, 물리적 연결이 부족하며, 안보 문제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을 통해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 보다 대국 인도네시아의 부상을 시사한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중국이든 아세안 회원국이든 그러한 행동이 역내 관계의 복잡한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해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인도네시아가 1960년대 이후 외교정책에 있어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누산타라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지연됐으며, 여기에 더해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일본에 접근했다가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중국도 신수도 개발과 관련해 잠재적인 파트너이다. 동부칼리만탄 주지사는 중국을 포함해 해외투자자에게 신수도 기반 시설 구축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열어 두었다고 밝혔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민선희

『유창한 회화를 위한 열공 인도네시아어 문법』 저자

{ter-} 접두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월호에서 {ter-} 접두사가 붙은 동사(형용사) 의미 3가지를 공부했었는데요.

- ② 의도치 않게 ~되다 : **terinjak** (의도치 않게 밟히다), **terbangun** (깨다, ≡ bangun)
  - ② **terdengar** = **dapat didengar** 들리다, **teringat** = **dapat diingat** 기억이 나다, 생각나다
  - ③ **terbalik** 거꾸로 되다(거꾸로 되어있는 상태도 됨)
- tertutup** 닫혀 있다 Orangnya agak tertutup. (내성적인 사람)
- ※tertutup v. tidak terlihat isinya, tidak terbuka, tidak untuk umum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다, 공개되어 있지 않다, 대중/일반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공개대상이 아니다)

이어서 공부해 봅시다.

①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행동), 고의가 아닌, 의도치 않게 ~하게 되다

♣**tertidur** 잠이 들다

“Maaf ya, semalam aku tertidur.” 미안~ 어젯밤에 나 잠이 들어버렸어.

※menidurkan anak 아이를 재우다 (ditidurkan) “Bentar ya, aku tidurin anakku sebentar.” 잠깐만, 나 우리 애 좀 잠깐 재우고.

♣**terbawa**

“Ini, punyamu, kan? Ini terbawa sama aku, kemarin.” 이거 네 것이지? 지난번에 내가 모르고 가져갔더라고.

“Ini punyamu, kan? Aku *bawain*\*\*, ya. Barangmu berat banget.” 이거 네 것이지? 내가 가져가 줄게. 네 짐 너무 무거운 거 같으니. =bawakan 대신 가져가주다

Bocah 4 tahun terbawa arus sungai saat berenang. 4살짜리 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물살에 끌려 내려갔다.



\*\* -in

일상에서 대화할 때 {-kan} 접미사뿐만 아니라 {-i} 접미사를 대신해 -in으로 주로 말을 하는데요, 자바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이 길을 따라 쪽 가주세요” 라고 할 때, Ikuti jalan ini, Pak. Tolong ikuti jalan ini. 라고 하면 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걸 ikutin 이곳뎌 이라고 많이 씁니다.

Ikuti 를 ikutin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어생활과 구어생활의 갭이 아주 커져서 외국인 학습자 입장에서는 골치가 좀 아프죠.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세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언어 실력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kan} 접미사를 일상 속 비격식 구어를 할 때 -in으로 말한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제가 설명한 부분까지 “알고 따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쳐다봤다고 할 때, Dia ngelihat aku.도 쓰지만, Dia lihatin aku.라고 일상에서 많이 쓰는데, 사실은 lihatin 이라는 단어가 memperlihatkan ‘~를 보여주다’ 하고는 무관하거든요. Aku lihatin catatanku.( “내가 노트한 걸 보여줬어.” ) 이럴 때에는 memperlihatkan하고 관련이 있지만요.

Kemarin aku **ngunjungi** rumah sepupuku. 이런 예도 들 수 있어요.

=Kemarin saya **mengunjungi** rumah sepupu saya.

### ♣terbakar, dibakar 차이

집에 홀라당 타버리면 terbakar, 누군가가 구운 생선이면 dibakar

Kantornya terbakar. 사무실에 불이 났어.

“Ikan ini mau diapakan?” 이 생선은 어떻게 해 드릴까요?

“Dibakar saja.” 숯불에 구워주세요.

②terdengar=dapat didengar

### ♣tidak terbaca = tidak bisa dibaca

(문자를 할 때) “미안, 이제 봤네” Maaf, baru lihat (x) Maaf, baru baca. (o)

Cara Baru Cek Pesan Belum Terbaca di WhatsApp.

왓츠앱에서 아직 안 읽은 메시지 확인하는 새로운 방법.

Memory cardnya rusak, jadi **tidak terbaca** di HP.

메모리 카드가 고장나서, 핸드폰에서 인식이 안 된다.

③ ~한 상태에 있다(dalam keadaan ~)

### ♣tertutup 무언가가 닫혀 있거나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

☞tutup, ditutup, tertutup, menutupi/ditutupi 차이를 유념하면서 보세요.

- ◇ A : Mereka buka enggak, hari Minggu? 일요일에 식당 열어?(영업해?)  
B : Hari Minggu **tutup**. 거기 일요일은 문 닫아(영업 안 해).
- ◇ Restoran itu akan **ditutup** sementara untuk direnovasi.  
그 식당은 보수가 필요해 한동안 문을 닫을 것이다.
- ◇ **Ditutup** saja pintunya. 문을 닫는 게 좋겠어요.
- ◇ Pertemuan **tertutup** 비공개회의
- ◇ Pertemuan tersebut **berlangsung tertutup**.  
그 면담(만남, 회의,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 ◇ Tanah longsor **mentutupi jalan** antara Cianjur–Puncak.  
산사태가 나서 치안주르와 푼착 사이 길이 막혀버렸다. (직역: 산사태가 길을 막음)
- ◇ “Caranya begini... kalau **menutupi** bekas jerawat.”  
여드름 자국을 덮으려면 이렇게 하면 돼.
- ◇ Banyak perempuan cenderung **menutupi perasaan** cintanya.  
많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는 편이다.(좋아하는 감정을 숨기는 여자들이 많다).
- ◇ Ada tanda-tanda seseorang sedang menutupi perselingkuhannya.  
바람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보이는 징조가 있다.

👉 **menutupi** :~를 덮다; 숨기다, 보이지 않게 하다

- ◇ Kasus kematian itu sengaja **ditutupi**. 그 사망 사건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덮었다.
- ◇ “Tidak ada yang **ditutupi**.”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Tidak ada yang saya tutupi).

#### ♣ **tersedia**

- ◇ **Tersedia** Es. 얼음 있음. (tersedia ‘준비되어 있다’ )
- ◇ Tempat isolasi Covid-19 di RS itu **tersedia** 500 tempat tidur.  
그 병원에 코로나 격리용 침대는 500개가 마련되어 있다.
- ◇ Beberapa wilayah masih **menyediakan** pelatihan SIM gratis.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무료 운전면허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 ♣ **tertulis**

- ◇ keterangan **tertulis** 서면 보도자료, 서면 설명자료
- ◇ teguran **tertulis** 서면 경고장
- ◇ ujian **tertulis** 서술시험
- ◇ Anies mengajak kader NasDem tidak perlu khawatir **apa yang ditulis** di sosmed hari ini, yang terpenting (adalah) **apa yang ditulis (oleh)\* sejarawan** di masa yang akan datang. (MedCom 11.11 기사 중 발췌) 아니스 前 자카르타주지사는 나스DEM 당직자들에게 오늘 소셜미디어에 뭘 쓸지 고민할 필요가 없으며, 역사가들이 미래에 어떻게 (우리에 대해) 써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ter- 동사 다음에는 **oleh**가 오지 않음. Di- 다음에는 오지만, 생략 가능할 때가 있음. 뒤에 따라오는 말이 수식구처럼 길면 **oleh**를 생략할 수 없음.

♣**terpakai**(=dapat dipakai) 어떻게 사용할까?

terpakai [KBBI 풀이]

v. dipakai tanpa sengaja (**의도치 않게 사용하다**)

Sepatunya yang ditinggalkan di tangga masjid **terpakai** oleh orang lain.

사원 계단에 두고 온 신발

v. **dapat dipakai, ada gunanya (berguna)** (쓸모가 있다, 사용 가능하다)

Barang bekas pun kadang-kadang **masih terpakai**. (masih bisa dipakai)

v. masih **lazim** dipakai (여전히 일반적으로 적용되다)

**Kebiasaan itu masih terpakai** di daerah itu.

그러한 관습이 그 지역에서는 아직 적용되고 있다.

▶ 5 rekomendasi **kado yang pasti terpakai** untuk bayi baru lahir.

신생아에게 선물하면 쓸모가 있는 선물 5가지 추천

▶ Seandainya **lama tidak terpakai**. Jadi bau apek.

\*lama tidak terpakai : lama tidak dipakai 라고 할 수도 있고, jarang dipakai라고도 할 수 있어요. Tidak biasa dipakai로도 할 수 있어서, 사전적 의미로는 두번째 의미와 세 번째의미의 경계가 조금은 모호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예문이네요.

침대커버를 오랫동안 사용 안 해서 궤환한 냄새가 나.

(참고로, apek[아פק] 이라고 ‘궤환한 냄새가 나다’ 라는 뜻으로 일상에서 쓰지만, 맞춤법에 맞는 단어는 apak[아팍]이에요)

▷ Gedung tua **yang tidak terpakai** bisa dimanfaatkan jadi toko UMKM. (Usaha Mikro Kecil Menengah).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건물을 영세 중소기업인 가게로 활용할 수 있다.

<tersebut> 자주 쓰이는 이 단어, 이렇게 해석 or 번역 하시면 돼요.

tersebut = telah disebut 앞서 나온 이야기를 다시 그대로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 쓰는 단어인데, 이걸 단어의 사전적인 뜻 그대로 ‘언급된’ 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말 ‘이, 그’ 같은 지시어를 적절히 활용하면 돼요. 때로는 없어도 앞에 나온 맥락에 따라 무슨 회담을 청하는 건지 알 수가 있고, 때로는 ‘금번, 이번’ 이런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Pertemuan tersebut berlangsung dalam suasana kekeluargaan.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Pemerintah mengusulkan revisi UU IKN(Ibu Kota Negara). Sejumlah partai termasuk PKS menolak usulan tersebut. 정부는 신수도법 개정을 제안했다. 복지정의당 등 일부 정당은 정부의 제안에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다시 짚어주는 게 좋아요. ‘그 제안’ 이라고 하면 번역 투로 남게 되기 때문에. 원문을 이해할 때는 ‘그 제안, 앞서 언급된 그 제안 이라고 이해하면 되지만, 글로 표현을 할 때 좋은 번역문이 되기 위해서는 지시어로 남겨두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써 주면 좋아요. 그, 그녀(he, she)라고 하지 않고 동일인물로 계속 칭해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2023년 1월호에서 {ter-}를 한번 더 공부하고, 2월호부터는 {ke-an} 접환사 공부를 해 보도록 합시다.



## Angke Restaurant - Ketapang

황지영 (PT. Prime Freight Indonesia)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도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얼마 남지 않은 달력 일수가 아쉽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새 달력을 걸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여러모로 바쁜 한 해였겠지만 그만큼 보람찬 결실 맺으셨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제가 가져온 식당은 연말 송년회 장소로도 적합한 큰 회전형 원탁과 홀이 있는 중식당을 들고 와봤는데요. 여기서 도란도란 맛있는 음식 나눠먹으며 소중한 사람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12월 호에서 소개해 드릴 식당은 중식당 Angke Restaurant - Ketapang입니다.

이 식당은 현지 화교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따로 밀키트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점도 KETAPANG, KELAPA GADING, PIK 이렇게 세 지점이 있습니다. 맛과 메뉴는 다 유사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 골라서 방문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면 넓은 홀에 여러 큰 원탁들이 있고, 방을 원하시면 방 예약을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식당은 현지 화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1965년부터 대를 이어 온 만큼 굉장히 역사도 깊은 “HAKKA” 요리 전문점입니다. 여기서 “HAKKA” 라는 것은 중국의 민족 중 하나인데요, 객가(客家)라고도 불리며 고향을 떠나 타향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북쪽에서 오랑캐들의 침략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 남쪽으로, 동남아로 이주하며 살게 된 이 민족은 한족의 지계이며, 현재 세계 전역에 8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타이완의 인구 15%가 HAKKA이고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화교들도 이 “HAKKA”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접하는 중식당들도 HAKKA 요리를 하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화교들은 중국 남부 푸젠성 지방 쪽의 사투리인 HOKKEIN을 사용하고 특히, 인도네시아 MEDAN이라는 도시에 가면 대부분이 화교인데, 이 도시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어보다 HOKKIEN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

부분의 이런 HAKKA 식당에 가면 메뉴 이름이 HOKKIEN으로 돼있을 거예요. HAKKA 요리는 다진 마늘을 많이 쓴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고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Ayam Rebus M:140,000루피아++, L: 260,000 루피아++)입니다. HAKKA 요리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제 화교 친구들도 갈 때마다 이 요리를 시키더라고요. 찰싹하게 쪄 닭에 위에 다진 마늘이 올라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한국의 닭백숙과 비슷한데요. 부드러운 닭을 위에 얹힌 다진 마늘과 함께 먹으면 이만한 밥도둑이 또 없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생소한 향신료도 없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생각보다 좀 짜기 때문에 짠 음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Sapo Tahu Seafood (S: 145,000루피아++, M: 185,000루피아++, L: 225,000루피아++)입니다. 튀겨낸 부드러운 연두부를 중국 특유의 전분 가득한 소스에 해산물과 야채, 버섯과 함께 조리한 음식입니다. 연두부를 한번 튀겨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게 바로 길바속속의 정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못해 입에서 녹아버리는 식감에 각종 해산물이 주는 풍미가 더해져서 도무지 맛이 없으려야 없을 수 없는 요리입니다. 중국 특유의 우동 숟가락에 전분 가득한 소스를 듬뿍 뜬 다음에, 그 위에 연두부, 해산물, 야채를 차례로 올리고 한입에 넣어서 드셔보세요. 이 또한 중국 특유의 향신료가 맛이 없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소개 들릴 요리는 Babi Hong(S:220,000루피아++, M:330,000루피아++, L:440,000루피아++)입니다. 중국요리 중 홍샤로우라는 요리를 아시나요? 두꺼운 오겹살을 간장과 설탕에서 오랫동안 조리한 요리인데요. 중국의 가정식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중국 유학 생활 시절 경험으로는 중국 친구들 집에 초대받으면 부모님께서 항상 내오시던 요리이고, 친구들도 할머니 집 가면 꼭 먹고 오는 요리더라고요. 동파육이랑 생김새가 비슷한데, 동파육은 삼겹살을 잘라서 간장에 조리한 것이고, 홍샤로우는 박피를 하지 않고 돼지 껍질이 그대로 붙어있는 채인 오겹살을 통째로 간장에 오래 조리기 때문에 사실 홍샤로우의 주재료는 비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기름지고 입에 넣자마자 비계가 부서지면서 기름이 터져 나옵니다. 여기서 느끼하고 맛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짜고 단맛이 강해서 느끼함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 이것도 밥반찬으로 딱입니다.





보통 밑에 청경채 같은 채소를 깔고 오랜 시간 졸이는데요, 이 집은 나물 같은 채소를 밑에 깔아서 사용했더라고요. 이 나물도 소스와 향이 잘 배여있기 때문에 밥이랑 고기랑 같이 곁들이시면 좋을 거예요.

네 번째로 소개드릴 요리는 Lindung Cah Fumak (S:165,000루피아++, M:215,000루피아++, L:285,000루피아++)입니다. Lindung은 뱀장어라는 뜻인데요, 튀긴 뱀장어를 청경채와 함께 소스와 조린 요리입니다. 사실 뱀장어를 튀겼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희가 접하는 그 바닷장어 특유의 통통한 살점의 식감을 느끼긴 어렵지만, 튀긴 뱀장어의 바삭함과 청경채의 아삭함 때문에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맛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분이 많은 간장치킨에 가까운데 또 식감은 장어이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보양식으로 튀긴 뱀장어 조림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요리는 Angsio Bakut (S:144,000루피아++, M:240,000루피아++, L:360,000루피아++)입니다. 송과 바쿠테를 아시나요? 유명한 싱가포르식 갈비탕 체인점 이지요. 여기서 바쿠라는 것은 갈비를 뜻하는 HOKKIEN 어입니다. 중국 표준어는 ‘파이’이고, HOKKIEN 언어에서는 바쿠라고 발음합니다. 튀긴 돼지갈비 요리인데요. 비주얼은 양념치킨입니다. 솔직히 맛도 양념치킨입니다. 그런데 이제 돼지갈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식감은 돼지갈비이고 튀김옷은 양념치킨 맛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리도 향신료가 없기 때문에 부담 가지시지 않고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끝으로 소중한 인연들과 이곳에서 이곳에서 귀한 시간 보내시며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알차고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기원하며 저는 그럼 내년에 더 새롭고 맛있는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여러분 ~



#### <식당 정보 : Angke Restaurant - Ketapang>

음식 종류 : 중식

가격대 : Rp 250,000-300,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오전 10:00- 오후 3:00,  
오후 5:00-10:00

주소 : Jl. Kyai Haji Zainul Arifin, RT.4/RW.7,  
Krukut, Kec. Taman Sari,  
Jakarta Barat, Jakarta 11140

※ Google 참고



# KOFA(재인니 한국신발협의회), 3년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코로나를 딛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뛰어넘는 강철코파로 거듭나



재인니 한국 신발협의회(KOFA:회장 이종윤)는 지난 22일 땅그랑 소재 모던랜드에서 제 12회 범 한국 신발인의 날 행사를 3년만에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를 비롯해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이강현 코참회장, 양영연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명예고문, 신기엽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명예고문, 안창섭 KOGA 회장, 이종현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장, 이세호 민주평통 남부지회장, 전민식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회장등 많은 내외빈 인사들과 KOFA 전회원사와 임직원을 포함한 약 5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처럼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지난 코로나기간 많은 회원사들은 어둡고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어렵사리 한자리에 모인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인들은 서로의 반가움과 작금의 어려운 글로벌 경제위기의 상황에서도 함께 극복하자는 열기를 높였다.

이종윤 KOFA 회장은 인도네시아 범한국 신발인의 날 행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함께하는 분위기에 감사한다 그리고 긴 시간 어렵게 잘 버텨온 회원사에게 감사와 성원을 보냈으며 글로벌 경제 위기속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신발산업이 또 한번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며 한국신발인들의 강철같은 의지를 믿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다음 세대의 신발인들을 위한 세대교체를 위해 더 탄탄한 신발산업을 차세대에서 꽃을 피울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는 신발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단합에 놀랐으며 인도네시아와 한국간 산업 전문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기회의 시대를 맞이 할 것이라는 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KOFA에서 매년 지원하는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봉사단체인 루마인다, 헤븐스에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으며 특히 초대가수 현숙씨는 공연료 전액을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목욕차량에 사용하겠다고 해 의미있고 훈훈한 행사 분위기를 이어갔다.

KOFA는 지난 14년전 초대 송창근회장을 시작으로 3,4대 신만기회장을 거쳐 현 이종윤회장이 이끌어가고있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단일 직능단체이다. 과거 노동집약산업에서 점점 장치산업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세계속의 한국 신발산업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계기 또한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기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인니 한국신발기업은 인도네시아내 약 40만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관련 인구를 포함하면 약 100만의 고용효과를 만들어 내고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 민간외교의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초대가수로는 인기가수 현숙을 비롯해 팝핀 현준, 박애리등이 출연해 행사장의 분위기를 하나로 모아 그 열기를 더했으며 KOFA의 하나된 열기를 더했다.

제 12회 범한국 신발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다시 시작하는 인도네시아 한국신발인들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 (제공: KOFA)



떠나야 보이는 것들

## “인생은 output이 아닌 input”

글: 손예리(일본어 번역가)

저센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며 며칠간 폭우가 이어지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인 일요일 늦은 오후. 필터를 사용한다 한들 이 빗줄을 온전히 담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은은하게 햇살을 머금은 하늘과 나무, 사람들과 건물들 모습을 마주한다. 차 없는 거리로 바뀐 휴일, 자카르타 SCBD 퍼시픽 플레이스 몰 앞에는 인라인 스케이트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저마다 알록달록한 헬멧을 쓰고 바람을 가르며 스케이트를 굴린다.

아무 생각 없이 걸어도 좋지만 가끔 잠시 멈춰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근사한 일이다. 이런 행복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두면 찾아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좋은 순간을 저장해 두어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행복을 만드는 것. 똑같은 시간도 무엇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즐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지난 2년여간 이곳 외국에 나와 살고 있다는 점이 감사함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꿈꾸고 동경하는 ‘해외에서 한달 살기’를 나는 한 달도 아닌 몇 년간 여행하듯 살고 있으니 값진 시간으로 여겨졌다. 늘 모국어가 들리고 모국어로 말하는 똑같은 환경에서는 특별할 것 없는 나날들에 어느새 호기심과 설렘은 사라지고 일상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사는 일은 새로운 것 없는 일상에 변화를 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인생의 선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아침마다 아이 등굣길에 함께 따라 나서며 하루를 시작하는 인사 ‘슬라맛 빠기’, 차창 밖 끝없이 이어진 오토바이 행렬, 길가에 무수히 늘어선 빠죽 솟은 붉은 코스투스 식물들, 거리를 오가는 히잡을 쓴 여인네들. 인도네시아에 오지 않았다면 미처 모르고 살았을 언어와 풍경들이다. 그러나 외국생활도 일상이 되면 여기가 한국인지 인도네시아인지 모르고 살아가기도 한다. 그러다 퍼뜩, 마냥 언제까지나 여기 있을 수 없는 정해진 주재기간이라는 데 생각이 미치면, 다시금 이국에서의 삶을 여행 온 것처럼 반짝이는 시선과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냥 그냥 흘러 보내는 하루하루가 아쉽고 아깝다.





<플라자 스나얀(좌)과 무슈 스푼(우)의 청록색>

몇 달 전, 인도네시아의 대표색이 청록색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이후, 비로소 ‘스나얀 플라자 몰’과 발리에서 온 빵집 ‘무슈 스푼(Monsieur Spoon)’의 청록색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청록색을 새롭게 발견하는 재미가 생겼다. 이전부터 거기 그 자리에 늘 존재하던 ‘청록색’이 ‘나 여기 있었어’ 하며 손짓하는 것 같았다. 의식하지 못 하고 알지 못 했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내가 알게 되고 의식하게 된 만큼 눈으로 담는 폭도 넓어지고 마음에 담기는 깊이도 커졌다. 그리고 현재 나의 삶의 터전인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한층 더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정들면 고향’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미 이곳과 정이 담백 든 것 같다.

인생은 결과물을 보여주는 output이 아닌, 과정을 보여주는 input이라고 생각한다. 삶에서 지나온 여정과 그 길에서 마주한 것들, 마음에 담고 느꼈던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과정이다. 우린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간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란 것은 없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좀체 알 수 없던 인생의 힘든 시간들조차 결국 자양분이 되어 자기 안에 남는 것이다. 새로운 잎이 나고 꽃이 피는 봄도 겨울이 오면 결국 전부 시들고 만다고 회의감에 빠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겨울이 있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진 오래된 잎이 영양분이 되어 땅은 점점 더 좋은 토양이 되고 새로운 잎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벌레라 해도 모두 무언가의 영양분이 된다.

얼마 전 일본어 문장을 번역하면서 가슴에 와 닿은 구절이 있다.

“오늘 수족관에 와서 새삼 든 생각인데, 우리는 헤엄치는 물고기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물고기가 움직이면서 생긴 물결을 보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동안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일으킨 물의 일렁임, 그 물결 같은 것이 아닐까? 그 작은 파장이 우리 가슴에 남는 거야.”

<사운드라이브러리, 세상에 하나뿐인 책 中에서>

삶도 여행과 같다고 한다. 목적지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길이 중요하다. 시간에 쫓겨 정신 없이 어떤 목표만을 향해 가는 것보다 조금 에둘러 가더라도 지나가는 길에 눈에 담고 느낀 것들이 우리 안에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 [서평] 내년 트렌드 코리아는? 트렌드 인도네시아는?

### 트렌드 코리아 2023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2023 전망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이수진, 권정윤 저 외 5명  
미래의창 | 2022년 10월 05일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연말이 되면 일기예보를 보듯 다음해가 궁금해지고 뭔가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다양한 연구소와 기관들이 내년을 예측하는 트렌드 연구보고서를 쏟아내지만, 그 중에서도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이맘때면 서점가를 채우는 대표 ‘장르’이다. 11월 25일 교보문고가 집계한 11월 셋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집계 따르면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쓴 ‘트렌드 코리아 2023’은 7주 연속 정상을 지켰다. 『트렌드 코리아 2023』은 먼저 2022년 대한민국 트렌드 분석과 트렌드 상품을 통해 현재를 살펴보고, ‘평균 실종’, ‘오피스 빅뱅’, ‘체리슈머’ 등 흥미로운 키워드 10가지를 제시해 2023년 소비 트렌드를 예측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와 더불어 연말이면 수십 권씩 쏟아지는 내년 전망과 트렌드 예측에 관한 책들은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진 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측 불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며, 기업은 물론 일반 대중도 ‘미래 트렌드’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을 반영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트렌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최근 급격하게 동조화 되는 세계 속에서 큰 흐름을 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 RABBIT JUMP

####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

십이 간지의 동물과 영문 두운 10글자를 이용해 표현하는 내년 트렌드는 ‘레빗 점프’이다. 웅크렸던 토끼가 더 멀리 뛴다. 2023년은 계묘년 검은 토끼(癸卯)의 해다. 걷지 않고 짱충짱충 뛰는 토끼는 속담이나 설화에서는 꾀가 많고 영리한 지략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한다. 초롱초롱한 눈과 큰 귀로 잘 보고 잘 듣는다. 교활한 토끼는 숨을 굴을 세 개 파 놓는다. 플랜 B, 플랜 C를 가지고 움직인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몰아 담지 않고 리스크 헷징을 하는 것이다. 2022년은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였고,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되는 기로에 섰다는 의미로 ‘Tiger or Cat. 호랑이가 될 것인가 고양이가 될 것인가?’였다.

## 2023 10대 트렌드 키워드

### \* Redistribution of the Average 평균 실종

평균, 기준, 통상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는 정치, 사회 분야로 확산되고 갈등과 분열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소비 역시 극과 극을 넘나들고 시장은 ‘승자독식’으로 굳혀지고 있다. 중간이 사라지는 시대, 평균을 뛰어넘는 당신만의 대체 불가능한 전략은 무엇인가?

### \* Arrival of a New Office Culture: ‘Office Big Bang’ 오피스 빅뱅

팬데믹 이후 일터로의 복귀를 거부하는 ‘대사직’, 최소한의 일만 하는 ‘조용한 사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출퇴근과 워라밸, 재택과 하이브리드 근무가 뒤섞이는 가운데 과거의 직장문화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송두리째 달라지는 일터에서, 조직과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 Born Picky, Cherry-sumers 체리슈머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겨가는 소비자를 ‘체리피커’라고 한다면, ‘체리슈머’는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전략적 소비자를 일컫는다. 무지출과 조각, 반반, 공동구매 전략을 구사하는 이들은 현대판 보릿고개를 지혜롭게 넘고자 하는 진일보한 합리적 소비자들이다.

### \* Buddies with a Purpose: ‘Index Relationships’ 인덱스 관계

관계의 ‘밀도’보다 ‘스펙트럼’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로빈 던바가 말한 인간관계의 적정한 수 150명은 이 시대에도 맞는 걸까? SNS를 통한 목적지향적 만남이 대세가 된 오늘날, 소통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관계는 여러 인덱스(색인)로 분류되고 정리된다. 이제 나의 친구는 어디까지 인가?

### \* Irresistible! The ‘New Demand Strategy’ 뉴디맨드 전략

아이폰을 내놓은 스티브 잡스는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소비자가 아예 생각지도 못한 제품을 내놓았을 때 그들은 줄을 서고 지갑을 연다.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대체불가능한 상품, 지금껏 써 왔지만 더 새롭고 매력적인 상품, 결제 방식이 유연한 상품 등, 다채로운 뉴디맨드 전략을 만나보자.

### \* Thorough Enjoyment: ‘Digging Momentum’ 디깅모멘텀

파고, 파고, 또 파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 행복한 ‘과몰입’을 즐기는 사람들, 디깅러의 세상이 오고 있다. 자신의 열정과 돈,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들은 과거 오타쿠와 달리 현실도피적이지 않으며 덕후와 팬슈머보다 더 진일보한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 다같이, Let’s dig in!

### \* Jumbly Alpha Generation 알파세대가 온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진짜 신세대, 알파세대가 떠오르고 있다.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엄마’가 아닌 ‘알렉사’였다는 이들은 단순히 Z세대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시작이다. 100퍼센트 디지털 원주민이자 벌써부터 세상을 놀라게 하는 알파세대, 그들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다.

### \* Unveiling Proactive Technology 선제적 대응기술

지금 기분에 맞는 노래 뭐가 있을까? 실내가 좀 어두운데 밝으면 좋겠어. 냉장고에 남은 우유가 있던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 모든 순간에,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배려해주는 기술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선제적 대응기술’이다. 삶의 각종 편의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 \* Magic of Real Spaces 공간력

멋지다고 소문이 난 공간은 어디에 있든 늘 사람들로 붐빈다. 실제공간은 단지 온라인의 상대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토대이자 터전이다. 아무리 정교한 가상공간이라도 실체를 이길 수는 없다. 소매의 종말이 언급되는 시기지만, 매력적인 컨셉과 테마를 갖추고 ‘비일상성’을 제공하는 공간력은 리테일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다.

### \* Peter Pan and the Neverland Syndrome 네버랜드 신드롬

요즘 어른 되기를 한껏 늦추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두가 어린아이로 영원히 살아가는 곳, 이른바 ‘네버랜드’의 피터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젊음을 미화하고 우상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짜 어른을 만나기 힘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청춘의 열정과 어른의 지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 ‘평균 실종’과 ‘오피스 빅뱅’의 2023. 관계, 일터, 나이, 공간..... 모든 것이 재정의된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천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외식비를 아끼기 위해 대형마트의 밀키트 판매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한 끼에 몇 십만 원을 호가하는 한우 오마카세와 고급 호텔의 망고빙수 열풍은 나날이 더 뜨거워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각기 다른 소비자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원이 대리가 되고, 대리가 과장이 되고, 과장이 차장이 되고, 차장이 부장 되고, 임원이라는 별을 따는 승진 체계는 이제 과거의 유물로 전락하기 일보 직전이다. 아예 승진을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감지된다. 그냥 일만 하고 ‘책임’은 맡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어차피 오래 다닐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전교 1등, 엄친아. 요즘 아이들인 알파세대가 가장 부러워하지 ‘않는’ 부류다. 운동이면 운동, 노래면 노래, 게임이면 게임, 자기만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를 ‘셀럽’이라고 여기며 누구와 비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 이들의 취미 놀이터는 무인 문구점과 다이소 그리고 셀프 사진관.

“어쨌, 너는 그대로니~~!” 동창회에서 가장 인기 높은 말이다. 청춘을 미화하고 젊음을 동경하며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한 사회에서, ‘어른스럽지 못하다’ 혹은 ‘나잇값을 못한다’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없게 됐다. 어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세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친구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속담처럼, 자주 소통하는 SNS 친구가 1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동창이나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게 현실이다. 목적지향성 관계 맺기가 일상이 된 오늘날, 나의 친구는 누구인가, 어디까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답을 내민다. 평균이 사라진 시대, 보통 사람들의 평균적인 사고, 대다수 소비자들이 찾는 무난한 상품으로는 이제 어디에도 명함을 내밀지 못한다.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는 사람들은 점점 지갑을 여는 데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시장은 양극화, N극화, 파편화되고 있다. 이제 어디에도 중간은 없다.



## 트렌드 인도네시아 2023은?

작은 평수의 아파트와 주택 같은 소형 주거공간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1인 가구 또는 핵가족화 영향으로 보인다. 고젝과 그랩, 토코피디어와 블리블리닷컴으로 대표되는 서비스와 상품의 온라인 주문과 배송 확산은 비대면 확산 현상이다. 발리에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비자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오피스 빅뱅 즉 재택 근무 확대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이다.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유권자 수가 많고 행동력이 큰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대선 후보와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쇼핑몰은 통로까지 빼곡히 상품을 진열하던 상점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후, 레스토랑과 카페, 교회와 은행, 관공서 등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교류하고 업무를 보는 장소가 되었다. 전기차는 이동수단을 너머 일하는 공간도 되고(오피스 빅뱅) 자는 공간(차박)도 될 것이다.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대신 온라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음식은 배달시키고 빨래는 세탁소에 맡기고 청소는 청소대행업체 앱을 통해 파트타임 청소도우미를 부른다. 소셜미디어, 유튜브, OTT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텔레비전과 종이신문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미디어는 광고 매출이 급감했다. 인도네시아가 실리외교와 중립외교를 외치며 외교적 역할을 적극 강화하는 것은 자국의 정치경제적 성장도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갈등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야기된 세계화가 끝나고 신냉전 시대 조짐이 보이는 환경에서 새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트렌드 코리아 2023’은 내년도 한국에 대한 예측이지만 ‘트렌드 인도네시아 2023’를 예측하는데도 참고할 만하다. [끝]

## 한국을 배우고 싶어요!



2022년 11월 7일, 인도네시아 국방 어학원 한국어 과정의 Endah Wati(해군 소령), Dinasti(육군소령), Eri Nasrul(공군 소령)이 한인회(회장 박재한)를 방문하여 어학연수 등을 위한 한국방문의 후원을 요청하였고 양국의 관계발전을 위해 한인회는 우리 말과 문화를 배우려는 국방 어학원 학생들에 대한 후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 소금강과 울곡의 발자취

김 준 규 시인 / 수필가 / 한인문인협회 회장

jinn.kim@outlook.com



어 림짐작으로만 상상하던 소금강의 트레킹을 위해서는 먼저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이 우선이었다. 산 입구의 작은 식당에 들어서니 울긋불긋 산채 나물이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다. 아니나 다를까 시선이 머무는 곳 노란 주전자, 노둑으로 생긴 갈증과 자유분방으로 열린 심리상태를 다스리는 것은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이 제격 아니겠는가. 겸하여 점심식사를 끝내고 산행을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을까? 중천에 떠있던 해는 어느새 산그늘에 가리어 종적을 감추고 천년을 살아 온 듯한 아름답리 소나무는 하늘로 치솟아 하늘을 가리고 서리에 데쳐진 듯 단풍 나뭇잎이 울긋불긋 산바람에 흔들리며 가을을 손짓한다.

노래하듯 흐르는 물은 쉴 새 없이 거품을 물고 깎아지는 바위에서 낙하하는가 하면 소용돌이를 벗어나면 잠잠히 숨을 고르며 작은 연못이 되어 유유히 흘러간다. 억겁의 풍상에 깎인 듯 모서리가 무디어진 바위가 너무죽하게 엮여 있다. 만상을 하고 흩어진 크고 작은 바위들이 겹겹이 쌓여 흘러간 풍수의 세월이 덧없음을 숙고하는 듯하다.



율곡 선생은 어머니인 신사임당의 친정인 강릉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친가인 파주와 서울에 근거를 두고 13세의 어린 나이에 진사 초시에 합격한 후 29세 때는 문과에 9번이나 장원급제 하는 등 일취월장 정치가로서 학자로서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이다. 평소에 율곡 선생은 바쁜 시간 속에서도 강릉의 외가댁을 찾아 지인과 교류하고 산수에 심취하였다고 한다.

오대산 줄기인 소금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문으로 들어 알게 된 율곡 선생은 심산 유곡에 펼쳐진 신령스러운 산세에 감복하여 산 이름을 ‘청학산’ 이라 명명하고 곳곳에 흩어진 괴암 괴석과 수려한 산봉우리에 각각의 이름을 부여 하였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점점 가파르고 계곡은 첩첩이 펼쳐진 산수화처럼 위상이 오묘하고 거친 경사에 군데군데 돌출한 돌맹이는 짓궂은 형상으로 어떤 놈은 골난 듯하고 어떤 놈은 미친 듯 ‘헤헤’ 웃으며 방문자의 길을 막아선다. 어름어름 이어진 인적의 흔적은 세월의 깊이만큼 닳고 닳아 구불구불 울퉁불퉁 시야에서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황새목을 하고 한참을 두리번거리면 다시 나타나는 알곳은 산길이다.

소금강의 트레킹 코스는 사찰인 금강사를 지나 너럭바위 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00여명이 앉고도 남을 이 널찍한 바위는 그 옛날 율곡일행이 최초로 당도하여 쉬고 있던 중 비가 내려 더 이상의 산행을 포기했던 곳으로 후일, 유청산학기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 전래에 의하면 원래 이 너럭바위의 이름이 식당암이었던 것을 율곡이 다녀간 후로 다시 비선암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소금강 (청학산)의 탐방을 마치고 율곡 선생은 ‘유청산학기’ 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그때의 감회를 이렇게 적고 있다.

“사방을 두루 돌아보니 모두 석산이 솟아있고 푸른 잣나무와 키 작은 소나무가 그 틈바구니를 누비고 있다. 석산이 양쪽으로 둘러쳐진 가운데 냇물의 근원이 매우 먼데, 흐름이 거센 곳에 폭포를 이루어 맑은 하늘에 천둥소리가 계곡을 뒤흔드는 듯하고 고인 곳은 못이 되어 차가운 거울에 흠하나 없는 듯 한가하면 깊고 맑고 아름답고 푸르러 낙엽이 붙지 못하고 휘돌아 흐르는 구비마다 암석모양이 천변만화 하고 산그늘과 나무 그림자에 이내가 섞여 어스레하여 햇빛이 보이지 않았다.”





## 그 시절의 영웅(2)

원작: 최호열

작가: 최재연(JIKS, 10학년)



지난호에 이어

### 사랑, 동갑내기 아내와 동반자가 되기까지

호열은 평범한 신입생 환영회의 뒤풀이 현장에 평범한 학생처럼 술집을 들어갔다. 거기서 한 여자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가 바로 지금 호열의 아내이다. 그녀는 호열에게 무척 잘 해줬다. 어린 나이임에도 사랑과 배려가 넘쳤다. 그녀의 따뜻한 모습에 반한 호열은 스물넷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스물넷, 인생의 황금기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려는 남자의 면상을 확인이라도 해야겠다는 듯, 식당은 학생들로 넘쳐났다. 삼삼오오 모은 돈을 합치거나 학생회비를 축의금으로 내고 갔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참석했지만 적자였다는 후일담을 남겼지만, 수많은 축하객들로 넘친 그날의 결혼식은 두고두고 그에게 자랑거리였다. 그렇지만 북적북적했던 결혼식과는 달리 신혼여행은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다. 어린 나이로 좋은 여행지에 가지 못했고 필리핀을 갔다. 재미가 없었다면 거짓이겠지만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었다.

호열의 아내는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현명한 여자이다. 딸바보, 아들바보라고 생각될 만큼 자식들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다 해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게 엄마이구나 싶은 모습을 보며 호열은 자신의 어머니 다음으로 모성애를 깨달았다.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봤을 때가 엇그제 같다. 첫째가 태어나던 그는 뒤늦게 병원에 찾아가 아내의 분만을 도왔다. 긴 시간이 흐른 후, 첫째인 재연이가 태어났다. 호열은 아내의 가녀린 몸에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이 놀랍고 고마웠다. 호열은 출산의 순간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다. 탯줄을 자르고 한 손에 들어올 것 같이 작은 아이를 바라봤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실감도 나지 않았다. 최대한 손에 힘을 뺐다. 조금만 힘을 준다면 아기의 몸이 부서질 것 같기도 했다.

눈물을 글썽이며 호열은 다짐했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아준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 후 동생인 재훈이, 재환이를 낳을 때도 호열은 아내의 곁을 지켰다.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경이로움. 아내와 그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호열은 스물다섯인 2005년에 입사한 회사를 17년째 다니고 있다. 힘들고 지쳐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다.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대학교가 좋아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호열은 회사에 최선을 다 했고 큰 기여를 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인도네시아까지 주재원으로 오게 되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며 고된 사회생활로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이 있어서였다. 호열은 가족이 있기에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그런 가족이 있기에 곳곳하게 버틸 수 있었다. 가족은 그에게 ‘버티는 힘’이다. 로봇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과 방대한 양의 회사 업무에 지칠 대로 지친 호열은 점점 모든 면에서 무뎌져 갔다. 연차가 쌓일수록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적어졌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정다감한 스타일이 아닌 호열은 똑똑하게 커가는 딸을 보며 격려의 말을 건네려 노력한다. 그의 딸은 혼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 애를 쓴다. ‘스스로 답을 찾으려는 딸아이의 모습’에서 호열은 반짝이던 눈으로 세상을 보던 그 시절의 자신을 발견한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서로를 존중하고 부부 싸움을 할 때 평정심을 갖는 일도 포함된다. 동갑인 호열과 그의 아내는 동반자처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서로를 돕는 지혜를 실천하려 노력했다.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리 어렵지 만도 않은 일이다. 가족들을 웃게 하려 노력하고, 저녁을 먹는 일들이 하나씩 모여 지층이 쌓여간다. 바로 가족이라는 ‘단단한 땅’을 만드는 일이다.



## Chapter 3: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호열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한다. 첫째는 자녀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주는 일이다. 친구 같은 아빠가 어렵다는 것은 호열도 안다. 아이들이 거부감을 드러내지만 않으면 반은 성공이라는데 호열도 그 고비는 넘겼다. 요즘 호열은 도전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더욱 한다. 살면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책으로 읽고 영화로 보고 음악으로 듣고 해도 실제로 그가 해본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기에 더 젊은 나이에 아이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며 스스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으면 한다.

‘호랑이의 열정’ 호열을 눈물 짓게 하는 것은 힘든 회사생활도 높은 현실의 벽도 아니다. 자녀를 키우며 가장 속상한 일은 딸아이 재연을 6학년 때 ‘홀로 유학’을 보낸 일이다. 물론 잘 해냈고 좋은 경험이지만 너무 어렸을 때 가서 속상한 일 중 하나였다. 어떤 사람은 유학 가는 것이 인생 목표이고 꿈일 수 있지만 호열은 반대 입장이었다. 굳이 말하자면 적극적인 찬성도 아닌 반대도 아닌 중립이었다. 그래도 부모로서 해줄 수 있을 때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호열이 자녀들을 위해 생각한 인생의 조언은 “이왕이면 좋은 대학교에 가라.”는 것이다. 어릴 때는 알지 못했는데, 나이를 먹어가며 학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 곧대처럼 들리겠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싶다.

자신감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안 되더라도 한 번은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살면서 많은 도움이 된다. 인생을 관망하는 나이가 된 호열은 새로운 도전하는 일이 조금씩 두려워지고 귀찮아진 상태이다. 만일 못 하게 된다면 주변에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걱정이 먼저 앞선다. 그래서 호열은 자녀가 이러한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길 바란다.

요즘 호열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골프이다. 어릴 때부터 활동적인 걸 좋아한 그는 처음에 골프가 과연 운동이 될까, 의문이었다. 한국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 시도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로 오면서 골프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골프는 생각만큼 쉬운 운동이 아니었고 ‘정신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스포츠라 그가 좋아하는 농구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다.





호열의 최종 목표는 회사에서 임원이 되는 것이다. 회사를 오래 다니기도 했고 계속 다닐 거면 이왕 높은 자리까지는 앉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호열의 개인적인 꿈은 높은 파도에 푸르른 바다가 어울러지는 곳에서 스쿠버다이빙 용품점을 여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누구보다 물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던 호열은 어른이 되어서도 스쿠버다이빙과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공기 좋고 물 좋은 산에서 살고 싶다는 남들과는 다르게 바다 쪽에서 사는 것이 그의 꿈이다. 다이빙 샵 옆에는 머물다 갈 수 있는 숙소도 있어야겠다. 직접 요리를 해서 모닥불 앞에서 손님들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나누는 호열의 미래. 마치 영화 ‘폭풍 속으로’의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처럼 말이다.

꿈이 없던 어린 시절과 달리, 어른이 된 호열은 꿈이 생겼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여럿. 그때와 다르게 안정적인 마음이 있어서인지, 가정이 생겨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영화같이 근사한 꿈이 생겼다. 가족과 함께 꾸는 꿈이 포근하다면, 호열 자신만의 꿈은 푸른 바다의 물결처럼 눈이 시리게 푸르다.

소중한 가족은 호열이 살아가는 이유이다. 지구가 지구 위의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한다면 가족은 그의 ‘지구’이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자 그가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호열의 어깨가 느끼는 ‘사랑’과 ‘책임감’의 무게는 균등하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호열은 오늘도 영웅처럼 일어선다.

## 로젠베르기황금귀신사슴벌레



글 : 류은우(PT.Yuanta Sekuritas Indonesia)



‘로젠베르기황금귀신사슴벌레’는 인도네시아 자바서부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며 최대크기는 83mm 정도로 알려져 있다. 1800년대 네덜란드

법학자이자 곤충학자였던 Snellen van Vollenhoven에 의해 학계에 처음 알려졌고, 종명 ‘Rogenbergi’는 이 종을 최초로 채집한 독일인 로젠베르크(H. Von Rosenberg)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나무위키]

###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특별한 경험이었다.

“관장님, 내년에 인도네시아 곤충캠프 오실 때, 아들과 함께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초등학생은 캠프에 받지 않는다고 거절하셨지만, 보호자로 함께 가겠다고 거듭 약속한 후에야 겨우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로 입국이 금지되기 직전이였다. 관장님은 은퇴하시고 평생 수집해온 곤충표본 수천 점을 가지고, 자택근처에 ‘곤충박물관’을 열었고, 어린이들을 위한 ‘곤충체험관’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신다고 한다. 한국에 겨울이 오면, 매년 인도네시아에 오신단다. 일곱 번째라고 하셨다.

아들은 유치원 때부터,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를 좋아했다. 주말에는 따만미니의 Dunia Serangga에서 한 두 시간을 보내고, 곤충관 앞 기념품 가게에서 가끔 살아있는 나뭇잎벌레, 장수풍뎅이를

사워서 키웠다. 유튜브 ‘곤충 콘텐츠’를 열심히 보더니,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왜 곤충을 채집하러 못 가냐며 졸랐다. 유튜브에 나오는 커다란 곤충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고유종이다.

여섯 달을 기다렸다. 수카르노하타에서 만나 일곱 시간을 달려 구농살락-할리문에 도착했다. 오늘 밤 등화를 밝히면 ‘로젠베르기황금귀신사슴벌레’를 만날 수 있다. 곤충캠프 참가자는 관장님과 곤충을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세 명이였다. 관장님은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도매상을 통해 나비 및 곤충표본을 수입하신다고 한다. 한국의 과학관 및 여러 체험관에 어린이를 위한 실습재료로 매년 몇 십만 본의 나비표본 등을 공급하신단다. 함께 있는 동안 브라질과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좋은 표본이 있으니 사가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으신다. 할리문에도 표본을 거래하는 도매상이 있어 매년 오신다고 한다. 함께 온 형.제는 곤충 매니아들이다. 형은 다음달에 대학생이 되고, 동생은 곤충을 너무 좋아해서 농업고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한다. 입학 선물로 곤충캠프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홉 살 아들과 나, 이렇게 다섯 명이 할리문에 오른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은 캠브리지에서도 실험공부보다는 딱정벌레 표본 수집에 더 열심이었다고 한다. 딱정벌레에서 출발한 그의 관심은 실험보다는 생물학으로 지리학으로, 마침내는 진화론으로 발전하여, 수 천년 인류가 믿었던 천지창조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종의 기원이 교회의

방해 없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1장 제목이, ‘사육과 재배 하에서 발생하는 변이’ 인데, 훌륭한 품종의 과일을 먹게 된 과정, 개, 말, 고양이, 딸기 등이 좋은 품종으로 우연히 선택되고 개량된 과정이 설명되어 있어서, 당시 상류층 귀족과 성직자들은 그들이 몰두하던 취미인 애완견 교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우량견-종’의 기원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열광했다고 한다. ‘종의 기원’, 아직 안 읽어봤다.

새벽에 숙소에 도착한 탓에, 오후가 되어 할리문에 오른다. 동행하는 동네 청년들을 ‘헌터’라고 부른다. 헌터들이 오토바이 뒤에 한 명씩, 농로가 난 산중턱까지 태워다 준다. 가이드를 따라 산골에 있는 어느 집에 방문하니, 마당에서는 나뭇잎벌레들을 키우고, 수천 마리의 사슴벌레, 풍뎅이, 딱정벌레들이 표본으로 포장되고 있었다. 일본, 중국사람들도 채집여행을 오는데, 일본사람은 사슴벌레, 중국사람은 나비만 채집한다고 한다. 중국인에게 나비는 부기와 행운의 상징이란단다. 산에 오르는 길에, 나뭇잎벌레, 대벌레, 난초사마귀를 헌터들이 잡아온다. 이름처럼, 나뭇잎, 대나무, 난초를 닮아 내 눈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 죽은 나무 등걸을 들추더니 메가볼(공벌레들)을 채집한다. 고추밭 토담에 난 구멍을 파고 들어가니 갓 태어난 새끼전갈 수십 마리와 큰 집게와 독꼬리를 가진 어미 스콜피온이 나온다. 개천을 따라 하얀 거미줄이 쳐진 구멍을 파니 까만 털이 덩수룩한 타란툴라 거미가 나오는데, 이번에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는 그걸 손 위에서 강아지 쓰다듬듯 한다.

예쁜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없단다. 버벌기, 메뚜기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해충 연구, 또는 꿀벌, 양잠 등 산업에 관련된 연구만 진행이 된단다. 곤충은 농업생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박멸대상일 뿐이다. 곤충과 인류의 공생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곳은 없다고 한다. 풍뎅이 같은 딱정벌레를 바하사로 Kum-bang이라고 한다. 한국 인터넷쇼핑에서는 장수풍뎅이 사육세트를 쉽게 주문할 수 있어서, 토코페디아로 검색을 해 보았다. 살충제들만 검색 된다. 팜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장수풍뎅이는 나무를 갉아먹는 해충일 뿐이겠지.

한국의 곤충산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애기뿔소뿔구리에서 코프리신이라는 물질을 분리해 피부친화성 화장품이 개발됐다고 한다. 꽃뽕이나 고소애라는 곤충의 애벌레는 고단백식품이자 동의보감에 약재로도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 학교 앞에서 쪼그려 앉아 먹던, 소라와 번데기가 생각났다.

어둑해지기 전에, 영화 스크린 같은 하얀 천을 나무기둥에 묶어 세우고, 날벌레들을 유혹하는 환한 전등을 설치했다. 동네 청년들은 발전기에 기름을 채우고, 정글칼로 나무줄기들을 베고 엮어 벤치와 서까래를 만들더니 비닐을 씌운 오두막을 만들어 준다. 멀리 건너편 산등성이가 보이는 곳이다. 골짜기로 스스룩 안개가 차오른다. 모닥불을 피우더니 쟁통에 믹스커피도 태워준다. 관장님이 능숙하게 청년들에게 5만 루피아씩을 쥐어 주신다.

산에 오르다 보니, 계단식 논도 있고, 고추밭도 있고, 토마토도 키운다. 인도네시아인테 마을에 개가 많았다.





오두막 아래 앉아있으니, 사냥개를 앞세우고, 공기총을 맨 사냥꾼들이 내려온다. 큰 다람쥐와 산비둘기를 잡았나 보다. 동네청년들이 산비둘기를 사서 모닥불에 구워준다. 아들은 꼬치에 구운 비둘기고기를 맛 보더니, 맛있게 탄 치킨 맛이란다.

어두워 지면서 작은 나방들이 날라와 스크린에 앉는다. 관장님은 매크로렌즈 카메라로 손톱만한 나방들을 연신 촬영하신다. 젊었을 땐 멋진 뿔을 가진 장수풍뎡이가 좋았는데, 나이 들면서는 아주 작은 나방들 날개를 감상하는 것이 더 좋아졌다고 하신다. 꽃무지 등껍질 무늬가 서로 같은 것이 없고, 하나 하나가 다 보석같이 아름답다고 하신다. 독일에서는 관상용으로 바퀴벌레를 분양한단다. 할리문산 고목에 사는 바퀴벌레들도 등껍마다 아라베스크가 새겨 있다.

날개 달린 개미들이 전등 주변에 몰려든다. 이런 계절혼비행이라는 건가? 해질녘부터 두어 시간 온통 개미들만 어지러이 날아 다니더니, 뚝 사라지고, 등화 아래 하얀 날개들만 국화 꽃잎처럼 쌓였다.

툭, 퍽, 투두둑

덩치 큰 딱정벌레들이 날아와 스크린에 부딪히는 소리다. ‘부케팔루스’ 다! ‘기라파’ 네! ‘코카서스’ 까지! ‘벨리코사’, ‘부케티’, ‘헥사페리’, 곤충매니아들은 그들만의 잔뜩 흥분된 언어로 대화를 시작했다. 내 눈엔 벌레들인데,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

헤라클레스, 타이탄이라는 이름의 장수풍뎡이도 있다는데, 그건 아메리카 대륙에 있단다. 왜 전부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이름들인지. 등화를 켜고 두어 시간이 지나자, 그 무겁고 딱딱해 보이는 날개를 가진 것들이 하얀 천 위로 날라와 부딪힌다. 건너 편 산속에서부터 불빛을 보고, 몇 시간, 수 킬로미터를 날아오는 수고로운 것들 이란다.

여전히 서부자바 할리문에만 산다는 로젠베르기.황금.귀신.사슴벌레를 기다렸다. 형제는 살아 움직이는 로젠베르기를 보려고, 한국에서 날아와 여기 할리문산에서 밤을 세우는 것이다. 내 아들도 그랬다. 오래 기다렸다.

세 번째 코카서스 장수풍뎡이부터는, ‘와 많네’ 하더니 연이어 날아오는 헥사페리 사슴벌레도 세 마리째부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산에 오른 지 대여섯 시간 됐을까, 드디어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로젠베르기 암컷 한 마리 날아왔을 때, 모두 감격의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75mm 정도되는 동종 빅사이즈의 수컷도 날아왔다. 4박 5일 동안 모두 6마리의 로젠베르기를 채집할 수 있었다.

고추잠자리(*Crocothemis Servilia*)는 한국 토종인데 반해, 꼬리가 노란 된장잠자리(*Pantala Flavescens*)는 필리핀에서 날아 온단다. 열대에 사는 잠자리라 한국에서는 겨울을 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릴 때, 여름만 되면 된장잠자리를 뒷산에서 잠자리채로 많이도 잡았다. 한국에서 짝짓기는 해도, 애벌레로 겨울을 나지 못하기 때문에 된장잠자리는 토종이 아니란다. 그 많았던 노랑꼬리 잠자리는 오즈의 마법사처럼, 매년 태풍을 타고 한반도에 오는 거란다.





현존하는 나방 중에서 가장 큰 아틀라스나방이 있는데, 새벽 2시나 되야 온다면서 하산을 늦췄다. 포식자인 새들에게 안 먹히려고, 뱀머리를 날개에 새겼단다. 커다란 날개를 퍼덕이며 진짜로 새벽 2시에 날아왔다. 날개 끝이 입맛을 다시고 있는 뱀머리 모양이다. ‘자연선택’,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기형아일 뿐이다. 그런데 수억 분의 일의 확률로 환경이 변화했을 때, 우연히 어떤 변이가 살아남아 새로운 종을 만들어 내는 것일 수도 있단다. 이 뱀머리가 수억 번의 우연과 우연의 결과란다. 아이들 머리보다 큰 사이즈에도 놀랐지만, 관장님 예연대로 딱 두 시에 나타난 것이 더 놀랍다.

농작물을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의 교란을 막기 위해 살아있는 곤충의 한국반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일본은 애완용곤충의 수입이 허가되어 있다고 한다. 관장님 일행은 아주 크거나, 특이하거나, 나는 이름도 모르는 괴상한 곤충들을, 그리고 로젠베르기황금귀신사슴벌레만 표본을 만들어 떠났다. 밀폐된 통에 가스를 넣어 질식사시키고는, 수술하는 의사처럼 비장하게 채집통에 넣는다. 딱정벌레들은 부화해서 애벌레로 1령, 2령, 3령, 탈피를 하고, 번데기를 거쳐 성충이 될 때까지 수년 동안을 죽은 나무 속을 파먹으면서 산다고 한다. 짧은 몇 달의 성충기간 동안 짹짹기를 마치면, 그의 역할을 다 하는 거라면서 너무 죄책감은 가지지 말란다. 또 딱이 멋진 사슴벌레나, 뿔이 웅장한 장수풍뎅이는 모두 수컷이란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풍뎅이는 죽어서 표본을 남긴다는 말로 황금빛 로젠

베르기의 죽음을 본 어린아이를 달랬다. 살아남은 곤충들은 모두 자카르타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다. 살아서는 한국에 갈 수 없었다.

한달 뒤, 관장님은 어느 유튜버와 함께 곤충 콘텐츠 촬영을 위해 다시 오셨고, 주말에 1박2일을 함께 했다. 그때는 60만이었는데, 글을 쓰는 지금 보니 구독자가 122만명이다. 한국 어린이의 절반은 구독하나 보다. ‘생물인 정브르’, 싸인을 그렇게 한다. 정브르 실물을 접한 아이들은 감격해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BTS가 온 줄 알았다. 분당에서 ‘곤충하모니’라는 희귀 반려동물샵을 운영한단다. 한국에 가면 들리겠다고 했더니, 정색을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살아 숨쉬는 곤충들과 함께 사시는 분이 왜 상자에 갇힌 곤충을 보러 오시냐고. 자기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우리가 부럽단다. 멋지고 다양한,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이 자연에서 움직이는 곳에 계시니 얼마나 좋겠냐고 한다. 연로하신 관장님은 구독자 1,000명이 목표라고 하셨다. 그러면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지금 보니 2,650명이다.

### Bhinneka Tunggal Ika (Unity in Diversity)

인도네시아에 온 지 10년이 되어간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함께 살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창조’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창조적’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잘 조합해서, 새로워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경험의 재료가 다양할수록 더 창조적이 될 수 있다. 자연보호보다는 ‘생물 다양성 보전’이라는 말에 더 공감한다. 특별한 경험이였다.



## 제12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제2회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문학상 발표

▶ 제12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일반부 대상에 류은우 씨 「로젠베르기황금귀신사슴벌레」

▶ 제12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학생부 대상에 한동훈 「무궁화와 연꽃」

▶ 제2회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초등부 대상에 강울 「초파리 생존기」

이영미 아동문학가(한인니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문학으로 승화시키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인니문화연구원》이 제정하고 《한-인니산림협력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과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문학상의 2022년 당선작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시상식은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열릴 예정이며, 웹진과 인쇄 책자로 제작되어 배포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발리의 꿈」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한 김현경 화가의 그림을 수상 작품집의 표지로 신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김현경 화가는 발리 덴파사르에 머물며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 ▶ 제12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일반부 수상자 명단

구분	상명	수상자	수상작
대상	대상상	류은우	로젠베르기황금귀신사슴벌레 (수필)
최우수상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상	황영은	라스미 (소설)
	한인니문화연구원장상	김현경	발리의 꿈 (수필)
	한-인니산림협력센터장상	김아람	안부 (수필)
우수상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장상	도지현	누구를 위하여 바람은 부나 (수필)
	한인기업가상 PT. Taewon Indonesia	윤세귀	말랑의 잠자는 공주 (시)
	인니갤러리 F. Widayanto상	전현진	6시 51분엔 막히는 게 성실한 도로의 일 (수필)
	발리에술가상	김유림	인도네시아에서 찾은 마음들 (수필)
특별상	Indonesia Korea Friendship Association상	김수은	시조새 (수필)
	KOICA소장상	김형석	추석 선물 밍크코트 (수필)



▶ 제12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학생부 수상자 명단

구분	상명	수상자	수상작
대상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대상	한동훈 ACS Jakarta 8학년	무궁화와 연꽃 (수필)
최우수상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회장상	송지섭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10학년	파푸아 (수필)
	한인니문화연구원장상	조규희 BINUS SCHOOL Simprug, 8학년	으뜸 화음 (수필)
	한-인니산림협력센터장상	신창민 AIS 9학년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의 한국인 기수 (수필)
우수상	한인기업가상 PT. Taewon Indonesia	오수아 SPH Lippo Cikarang 12학년	나의 망고나무 (수필)
	인문창작클럽회장상	한어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11학년	흔한 한국 학생인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산다는 것은 (수필)
특별상	Lembaga Kebudayaan Betawi상	이수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10학년	느림의 미학 (수필)
	인니예술가상	이지안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10학년	비와 웃음꽃 (시)

▶ 제2회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문학상 초등부 수상자 명단

구분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	수상자	수상작
대상	Rp.3.000.000	강율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5학년	초파리 생존기 (동화)
최우수상	Rp.1.500.000	이두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5학년	맹그로브 숲의 정화 기능 (수필)
우수상	Rp.1.000.000	이은솔 BINUS SCHOOL Simprug, 5 학년	자바 코뿔소를 구해줄게 (동화)
	Rp.1.000.000	임서호 SPH Kemang Village 1학년	고양이, 맹그로브 (동시 2편)
장려상	Rp.500.000	김민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6학년	별 모양의 열매 (동화)
	Rp.500.000	박승우 ACS Jakarta 3학년	가루다(Garuda), 비밥 (동시 2편)

올해 12회를 맞이한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임업 및 산림경영 분야의 협력 증진에 앞장서는 《한-인니산림협력센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작년에 신설된 초등부 <인도네시아 생태이야기> 문학상은 재인도네시아한인회와 재외동포재단, PT. Taewon Indonesia, 한인상공회의소, KOICA Indonesia의 후원을 받아 진행된다. 해외 거주, 나무, 숲, 팬데믹 등 ‘인도네시아에 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네 명의 작가들의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일반부 총10편, 학생부 총8편, 초등부 총6편이 최종 결정되었다.

심사에 참여한 이위발 시인(이육사문학관 사무국장, 한국작가회의 대구경북지회장)은 “예선을 거쳐 올라온 최종 원고를 보면서 이국땅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의 모습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이질감이 들 수 있는 타국에서 문화가 달라도 배려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안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이야기> 문학상 초창기부터 심사와 시상식 진행을 맡아온 채인숙 시인은 심사평에서 “해마다 응모작이 늘어나고 글의 수준도 놀랍도록 향상되어 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스스로 문학상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고 소회를 밝혔다. 올해 응모작은 예년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았으며 등수를 매기는 일이 곤혹스러울 정도로 글의 내용과 문장, 그리고 전개 방식에 이르기까지 수준 높은 작품들이 응모되었다.

### <류은우 [로젠베르기황금귀신사슴벌레] 수상 소감>

BHINNEKA (Bhinna+Ika) TUNGGAL IKA

산스크리트어(범어)로 ‘다양한 것이, 하나인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흡사 불교에서 얘기하는 ‘色卽是空 空卽是色(색즉시공 공즉시색)’이나, 노자가 말하는 ‘道可道 非常道(도가도 비상도)’처럼 그 뜻을 여러 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조각들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 욕심에 성급해 질 때마다 이 문장을 되뇌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특이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것이 창조적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할리문 곤충캠프에 참가하였지만, 어쩌면 저에게 더 필요한 경험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 조각들을 퍼즐처럼 흠여놓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라는 주제로 받아들이시거나, 곤충의 다양성에 흥미를 갖거나, 아니면 읽는 분에 따라서는 환경과 진화라는 주제로 조각을 맞추어 멋진 이야기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요.

곤충에 관련된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카르타에 온 지 10년이 되어갑니다. 한국과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 살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고, 제 글이 인도네시아의 특별함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곤충으로 치면 저도 외래종인데 토종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제가 하나의 다양성 인자으로써, 진화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반성해 봅니다.





## 신이 내린 꽃

헬렌 하르소노(Heylen Harsono)



지난달 중순, 성공리에 개최된 발리 정상회의의 장막 뒤에 있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조코위 행정부에서 관광창의경제장관을 했던 위스누타마(Wisnutama) 전 장관입니다. 위스누타마 전 장관은 발리 가루다 위스누 큰차나(GWK, Garuda Wisnu Kencana) 공원에 있는 연못 광장을 정상 환영 만찬 장소로 멋지게 탈바꿈 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문화의 다채로움과 아름다움, 자연을 한껏 느끼게 해 주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윌리엄 왕소(William Wongso)라는 유명 요리연구가입니다. 윌리엄 왕소는 인도네시아 음식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하는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리 G20에서 윌리엄 왕소는 세계 정상들에게 내어놓은 환영만찬 음식 준비 총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호에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따로 있습니다. 세계 정상들에게 드린 선물을 준비한 분인데요. 바로 발리 싱아라자(Singaraja) 출신으로 자바와 발리의 향을 조합하는 조향사, 윌리엄 시커르 위자야(William Sicher Wijaya)입니다. 윌리엄은 아라비안 자스민(Jasminum Sambac / Melati Putih), 매그놀리아 알바(Magnolia Alba), 에틀링에라 왈랑(Etlingera Walang\* 역자 임으로 한글표기를 하였습니다) 등을 조합해 세계 정상들을 위한 향수를 만들었습니다. 자스민은 프칼롱안(Pekalongan) 등 자바섬 북부 해안에서 나는 자스민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자스민은 인도네시아 국화(3가지) 중 하나인 것 아시지요?

자스민은 해가 지고 나면 향기가 짙게 납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시기가 다가오면 그렇습니다. 자스민은 화려한 꽃은 아니지만, 자스민 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스러움과 우아

함, 진실함을 상징합니다. ‘신이 준 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스민 향은 침실에 두면 심신을 이완해주어 숙면을 도와주고, 생리 불순이 있거나 갱년기 증상이 있는 여성들에게도 좋습니다. 자스민에서 추출한 기름을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데 쓰기도 하고, 그 밖에도 피부 트러블도 완화해 주고 세균을 없애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윌리엄이 이번 발리 G20 정상회의의 선물로 만든 향수에는 파푸아 지역의 가하루(Gaharu침향무) 나무의 향도 사용되었습니다. 가하루 나무는 세계적으로 고가(高價)의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년만에 한번 개최되는 정상회의인 만큼, 얼마나 고심해서 향을 만들었을까요? 언론들은 눈에 보이는 환영만찬 공연과, 음식, 세계 정상들이 무슨 차량을 사용하는지 등에 주목했지만, 세계 정상과 정부 고위 인사들은 귀국 후 윌리엄의 ‘특별한’ 향수 냄새를 맡으며 인도네시아를 기억할 것 같습니다. 발리 땅을 밟았던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인도네시아는 어떤 향으로 기억될까요?

좋은 브랜드의 향수를 쓰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화장품이나 목욕 용품에 자스민 향이 있는 것들이 있으니 활용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마이클 디오르(Minchale Dior-크리스찬 디오르의 아들)가 인도네시아의 ‘다운 닐람(daun nilam, Pogostemon cablin Benth)’을 향수 재료로 쓰기 위해 술라웨시통가라(술라웨시섬 동남부)의 콜라카(Kolaka)라는 소도시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의 향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칠 날이 올까요? 여러분은 인도네시아 향수를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번역: 민선희)







## 제8회 2022년 한인청년회와 옥타차세대 골프대회 및 송년회 성료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를 이끌어 갈 차세대들이 2022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23년 새해 결의를 다지는 송년행사를 가졌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개최되지 못한 이번 행사는 11월 19일 남부 자카르타에 있는 스나얀골프 클럽에서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회장 이정호)와 세계한인무역협회 자카르타 차세대(대표 하영빈)가 ‘제 8회 2022년 골프대회 및 송년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인청년회 이정호 회장은 환영사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이 시대를 성공적으로 리드하기를 기도하고, 22년 한해 고생 많으셨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기업들의 확장과 성장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자카르타 차세대 하영빈 대표는 “청년들간의 교류만큼 시니어들과의 교류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서로 교류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 테니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인도네시아 박재한 한인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 자카르타 김종현 지회장, 손한평 한인회 수석부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한인청년회의 주요 활동은 한인회 봉사활동,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장 프로그램인 ‘Maju Satu

Langkah’, 한인청년회\*옥타차세대 골프대회 및 송년의 밤, UI\*UPH 및 대학생지원 및 멘토링 활동, 인도네시아 청년단체들과 교류 및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차세대의 주요 활동은 무역스쿨(무역생도 발굴), 명사초청강연회, 차세대들간 네트워크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인청년회는 만 45세까지의 청년이면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세계한인무역협회 차세대의 경우는 매년 6-8월경 있는 차세대 무역스쿨을 수료한 자만 가입할 수 있다.

한인청년회 이정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이 시대를 성공적으로 리드하기를 기도하고, 22년 한해 고생 많으셨다”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기업들의 확장과 성장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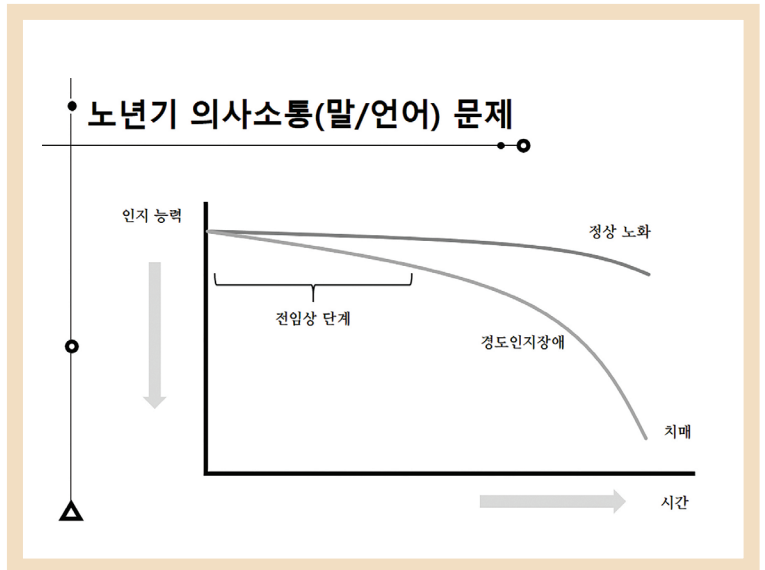
세계한인무역협회 자카르타 차세대 하영빈 대표는 “내년 발리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통합무역스쿨에 많은 응원과 참석을 촉구하며, 전 세계 있는 차세대 OKTA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기회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제공: 한인청년회)

# 언어발달의 비밀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KOWIN)에서는 지난 11월 5일 (토) 남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Tier Space에서 언어병리학 석사 김수진 강사님을 모시고 언어발달의 비밀이라는 주제 하에 강연시간을 가졌다. 연령별 언어발달의 단계, 학령기 아이들의 문해력 높이기, 중장년 및 노년기의 치매 및 뇌건강에 대한 강연을 통해 인생 주기에 맞는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 및 향상방법을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센스 있는 강연과 유쾌한 진행으로 2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참여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양방향 소통의 강연을 통해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인지-의사소통 능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코윈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공:KOWIN)



## 영아기 의사소통 능력 발달

0-6개월

이해언어	표현언어	말	인지	사회적 의사소통
<b>소리를 인식한다</b>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는 반응을 보인다 <b>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본다</b> 말소리를 듣고 미소를 짓거나 조용해지는 것으로 말소리에 반응한다 어머니/ 주 양육자 목소리를 안다	<b>배가 고프거나 화가 나면 울음으로 표현한다</b> 가끔 말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소리를 내기도 한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소리를 낸다 노래에 반응하여 소리를 낸다 즐거움 싫음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울거나 웃는다 투레질을 한다 소리를 지른다 <b>모음 '아'를 사용한다</b> 마찰 소음, 비성 등 자음의 특성을 지닌 소리를 산출한다 <b>소리를 내며 놀이한다</b>	몇 가지 일들을 예상한다 사물을 쳐다보고 손을 뻗는다 친숙한 사람을 알아본다 입으로 물건을 가져가기 시작한다	5-15초 정도의 눈맞춤을 한다 3개월 정도에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 본다 어머니/주양육자에게 미소를 짓거나 소리를 내어 반응하기도 한다 번갈아 소리내기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 외래어표기법(1)

아래 [표]는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의 제2장 표기 일람표에서 발췌했다. (2022.11)

(\*시행 2017.3.2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4호)

[표14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자모	한글		보기
		모음 앞	자음 앞·어말	
자음	b	ㅂ	ㅂ, ㅃ	Bali발리, Abdul압둘, Najib나집, Bromo브로모
	c	ㅈ	ㅈ	Ceto 체토, Aceh아체, Mac 마츠
	d	ㄷ	ㅅ, ㄷ	Denpasar 덴파사르, <b>Ahmad 아맛</b> , Idris 이드리스
	f	ㅍ	ㅍ	Fuji 푸지, Arifin 아리핀, <b>Jusuf 유슈</b>
	g	ㄱ	ㄱ, ㄴ	Gamelan 가믈란, gudeg 구득, Nugroho 누그로호
	h	ㅎ	—	Halmahera 할마헤라, Johor 조호르, Ipoh 이포
	j	ㅈ	ㅈ	Jambi 잠비, Majapahit 마자파히트, mikraj 미크라즈
	k	ㅋ	ㄱ, ㅋ	Kalimantan 칼리만탄, batik 바틱, Krakatau 크라카타우
	kh	ㅎ	ㄱ, ㅋ	Khas 하스, akhbar 악바르, Fakhruddin 파크루딘
	l	ㄹ, ㄹㄹ	ㄹ	Lombok 롬복, Palembang 팔렘방, Bangsal 방살
	m	ㅁ	ㅁ	Maluku 말루쿠, bemo 베모, Iram 이람
	n	ㄴ	ㄴ	Nias 니아스, Sukarno 수카르노, Prambanan 프람바난
	ng	ㅇ	ㅇ	Ngarai 응아라이, bonang 보낭, Bandung 반둥
	p	ㅍ	ㅂ, ㅍ	Padang 파당, Yap 압, Suprana 수프라나
	q	ㅋ	ㄱ	furqan 푸르칸, Taufiq 타우픽
	r	ㄹ	ㄹ	Ringgit 링깃, Rendra 렌드라, asar 아사르
	s	ㅅ	ㅅ	<b>Sabah 사바</b> , Brastagi 브라스타기, Gemas 게마스
	t	ㅌ	ㅅ, ㅌ	Timor 티모르, Jakarta 자카르타, <b>Rahmad 라맛</b> , Trisno 트리스노
	v	ㅂ	—	<b>Valina 발리나, Eva 에바, Lovina 로비나</b>
	x	ㅅ	—	Xenon 세논
	z	ㅈ	ㅈ	Zakat 자캣, Azlan 아즐란, Haz 하즈
반모음	w	오, 우		Wamena 와메나, Badawi 바다위
	y	이		Yudhoyono 유도요노, Surabaya 수라바야
모음	a	아		Ambon 암본, sate 사테, Pancasila 판차실라
	e	에,으		Ende 엔데, Ampenan 암페난, Pane 파네, empat 음팟, besar 브사르, gendang 근당
	i	이		Ibrahim 이브라힘, Biak 비악, trimurti 트리무르티
	o	오		Odalan 오달란, Barong 바롱, komodo 코모도
	u	우		<b>Ubud 우붓</b> , kulit 쿨릿, Dampu 담푸
이중모음	ai	아이		ain아인, Rais 라이스, Jelai 즐라이
	au	아우		aula 아울라, Maumere 마우메레, Riau 리아우
	oi	오이		Amboina 암보이나, boikot 보이콧



V[페]의 음가는 /f/이다. 그런데 상기 국립국어원 <표14>에는 모음 앞에서 ‘ㅍ’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Eva 에바 (x) 에파(o)

국가별 언어로 구분한 표가 있는 것 보면, 해당 국가의 언어의 음가대로 한글 표기를 하기 위해 구분한 것인데, 영어처럼 Val 을 ‘발’로 표기한 것은 오류라고 생각된다.

제3장 표기세칙에서 제16절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의 표기에 나와 있는 조항을 근거로 <표14>에 나와있는 몇 가지 예시 단어를 살펴보자.

\*표기세칙에 나온 일부 예시에 대해 추가 설명해 보겠다. 모든 예시를 보려면 표기세칙 원문을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제1항 파열음) 유음이나 비음 앞에 오는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예] Ibrahim 이브라힘 Prambanan 프람바난 Supratman 수프라트만

\*유음 : ㄹ 비음 : ㄴ, ㄹ, ㅇ 파열음 : 장애음 (/ㄱ, ㄲ, ㅋ / ㄷ, ㄸ, ㅌ / ㄴ, ㄹ, ㄷ, ㅌ, ㅍ /), 비음 (/ㅇ, ㄴ, ㄹ/)

※영어의 ‘strike’가 몇 음절일까? 영어로 발음하면 1음절이지만, 한국어로 표기하게 되면 5음절이 된다. ‘스-트-라-이-크’. 우리말에서 자음뒤에 모음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발음하게 될 경우 5음절이 된다. Prambanan이라는 것도 사실 표기는 ‘프람바난’이라고 하지만, 한국인이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것을 인도네시아인이 듣는다면 원어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영어 조항도 참고해 보자>

## 제2항 유성 파열음([b], [d], [g])

어말과 모든 자음 앞에 오는 유성 파열음은 ‘으’를 붙여 적는다.

bulb[bʌlb] 벌브

lobster[lɒstə] 로브스터

land[lænd] 랜드

kidnap[kɪdnæp] 키드냅

zigzag[zɪgzæɡ] 지그재그

signal[ˈsɪɡnəl] 시그널

상기 영어 조항을 함께 참고하면, masjid는 우리말로 표기하려면 마스지드라 적고, Ahmad는 아흐마드라고 적어야 한다.

(제2항 sy) sy는 뒤따르는 모음과 합쳐서 ‘샤, 세, 시, 쇼, 슈’ 등으로 적는다. 구철자 sh는 sy와 마찬가지로 적는다.

\*제2항에는 나와있지 않았지만 추가로 들 수 있는, 보다 쉬운 예시에는 syariah 샤리안 가 있다.

(제3항 dj, tj) 인도네시아어의 구철자 dj와 서는 신철자 j,c와 마찬가지로 적는다.

[예] Djakarta 자카르타

\*간혹 이를 “자카르타”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신철자와 마찬가지로 적는다는 의미다.

(제4항 j,sj) 인도네시아어의 구철자 j와 sj는 신철자 y,sy와 마찬가지로 적는다.

[예] Jusuf 유쑤 Yusuf 유쑤

\*추가로 들 수 있는 예시 : Yogyakarta 족자카르타는 ‘욕야카르타’로 표기하지 않는다. 공식 철자는 Yogyakarta이지만 문자 등 비격식 언어환경에서는 Jogjakarta라고도 사용한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Jusuf는 왜 유수프라고 쓰지 않고 유쑤이라고 쓰지?

인도네시아어 표기세칙에는 이를 다루는 조항이 없지만, 영어 표기세칙 조항을 근거로 한번 보자.

제3장 표기세칙-제1절 영어의 표기 -제3항 마찰음([s], [z], [f], [v], [θ], [ð], [ʃ], [ʒ])

1. 어말 또는 자음 앞의 [s], [z], [f], [v], [θ], [ð]는 ‘으’를 붙여 적는다.

mask[mɑːsk] 마스크  
olive[ɒlɪv] 올리브

jazz[dʒæz] 재즈  
thrill[θrɪl] 스릴

graph[ɡræf] 그래프  
bathe[beɪð] 베이드

영어 표기 조항을 참고한다면, graph 그래프라고 표기한다고 나와있는 것처럼 Yusuf 어말에 [f]가 있으니 이를 유수프라고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인도네시아어표기세칙에는 이에 대한 조항은 없고, 유쑤이라고 표기한다고 되어 있다.

Q : 조꼬위가 맞나 조코위가 맞나?

외래어표기법 제 1장 4항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어 파열음에는 /ㄷ, ㅌ, ㅍ/, /ㄸ, ㅌ, ㅍ/, /ㄱ, ㅋ, ㅋ/이 있다. 외래어가 이렇게 소리 난다고 해도 된소리는 쓰지 않는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Jokowi 는 [조꼬위]라고 발음하지만, 된소리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지 않고 “조코위”라고 표기한다.

바탕 산업단지(Kawasan Industri Batang) Batang 표기 : 바탕 발음 : [바땅]

파찰음/ㅈ, ㅊ, ㅍ/을 예로 들면 Cianjur, Cirebon 치안주르 치르본으로 표기한다. 발음은 [찌안주 r] [찌르본] 일지라도.

언어별 표기세칙(인도네시아어)에서 (제14항 같은 모음이 겹쳐 나올 때) 조항을 보면, 같은 모음이 겹쳐 나올 때에는 한 번만 적는다고 설명되어 있다. 예시로 든 것이 Pandaan 판단 saat 샷인데 인도네시아어에서는 /aa/는 장모음으로 구분하고, 실제로 maaf를 [마아f]으로 ‘a’가 두 번 있으면 /maf/가 아닌 /ma-af/로 발음하지만 표기는 하나만 한다는 의미다.

다음 영어 조항에서도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 제7항 장모음

장모음의 장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team[ti : m] 팀

route[ru : t] 루트

team과 route는 우리 일상에서 차용해와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고 표기할 일이 자주 있지만, 사실상 maaf와 saat 이런 단어들은 표기할 일 자체가 없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세칙]에는 총 15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7개 조항이 신철자와 구철자를 구분하는 조항이다. 이 내용을 한 개의 조항안에 다 넣고, 현재 나와있지 않는 세부조항을 더 설명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 ■인도네시아 지명, 인명 읽기(발음)와 쓰기(표기)에 대한 고민거리

외래어표기법 [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중에서 [제3절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중 하나를 인도네시아어에도 적용해 보겠다.

제 4항 지명이 산맥, 산, 강 등의 뜻이 들어 있는 것은 ‘산맥’ , ‘산’ , ‘강’ 등을 겹쳐 적는다.

Rio Grande 리오그란데강 Mont Blanc 몽블랑산 SierraMadre시에라마드레산맥

상기 조항대로라면, Sungai Ciliwung은 숭아이찐리웅강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동안 찐리웅 강이라고 써 와서 그런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다.

1장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위 1장5항에 따라, 그간 인도네시아 관련 한국내 언론보도와 교민사회에서 관용적으로 쓰고 있는 대로 ‘찐리웅 강’ 이라고 표현하면 될 듯한데, 문제는 ‘찐’ 로 할 것인가 ‘칠’ 로 할 것인가이다. 사실은 ‘칠’ 로 표기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그동안 외래어 표기법이 아닌 발음 그대로 ‘찐’ 로 널리 써 왔는데 어쩔 것인가.

### 그리고, Tangerang은 땅그랑일까 땅으랑일까?

Tangerang 을 보면 외래어표기법 원칙을 근거로 한다면 **땅으랑**이라고 표기해야 맞다. (구글지도에는 ‘탕에랑’ 으로 나온다.) 그러나 관용적으로 교민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땅그랑**으로 써 왔다. 앞으로도 **땅그랑**으로 계속 쓰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위 외래어표기법 1장 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라고 대원칙이 나와 있다.

결국엔 어떤 건 이렇게 쓰고, 어떤 건 저렇게 쓰고 짬뽕이 되는 형국인데 어차피 전문번역사나 공식적 문서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나 중요한 문제이지, 일반 언중들에게는 뜻만 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규칙’ 은 ‘규칙’ 이지 않는가. 다음 호에 이어서 외래어표기법(인도네시아어를 중심으로)에 대해 더 살펴보겠다.



## 국내 제약회사 종근당, 고촌재단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 베트남·인도네시아 현지 장학생 선발...온라인 장학증서수여식 개최
- ▶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2013년부터 저개발국가 현지 대학생 380명 지원



종근당고촌재단(이사장 김두현)은 23일 온라인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올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현지 장학생과 국내 유학생 등 4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인도네시아의 반둥공과대학과 인도네시아국립대학, 베트남의 하노이약학대학과 호치민의약학대학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4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졸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대학원에서 유학 중인 베트남 장학생 2명에게는 등록금과 체재비를 지원한다.

올해 장학증서 수여식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기념식으로 대신했으며, 재단 관계자의 축하와 장학생들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종근당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은 “사회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우수한 인재”라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각국의 우수한 장학생인 만큼 자국의 발전을 이끄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근당고촌재단은 2013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저개발국가의 인재를 지원하는 해외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380명의 현지 장학생을 지원했으며, 학비 지원 외에도 국내·외 장학생 간 교류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내 제약회사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2015년 9월 인도네시아 OTTO社와 함께 합작회사 PT CKD OTTO Pharmaceuticals(이하 CKD OTTO)를 설립한 바 있다. 당시 CKD OTTO 백인현 대표이사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제약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6조 원이고 향후 연평균 성장률(CAGR) 13%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CKD OTTO의 설립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며, “CKD OTTO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아세안 10개국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9년 현지에 12,588㎡ 규모의 항암제 공장을 준공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GMP 승인을 획득했으며,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구인 율레 마협의회의(MUI, Majelis Ulama Indonesia)로부터 할랄(HALAL)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제공: 종근당)

# 곽영민 국기원 파견사범 , 인도네시아 태권도 보급 성과 현지 언론 호평 연속 보도

- 해군헌병사령부 태권도 의무 무도 채택 확정
- 육군 체육사령부 태권도 공식종목 추진
- 공군 특수전투사령부 태권도 의무 무도 추진
- 인니 최초 시립이슬람대학교 태권도학과 개설 확정

인도네시아 해군헌병사령부는 기존 의무 무도인 가라데 수련을 종료하고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를 의무 무도로 채택했다. 헌병사령관은 태권도를 비롯해 특히 한국문화와 인도네시아문화 교류에 큰 관심을 보여오고 있으며, 이전 보직인 해군항공사령부 사령관 시절에도 태권도를 선택 무도로 진행을 시켜왔고 군부외에 민간 태권도 보급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기원 해외파견 사범인 곽영민 태권도 감독과 해군헌병사령관의 오랜 협력 그리고 해군 및 해병대에서 장교로 활동중인 곽영민 감독의 제자들이 태권도 의무 무도 채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국기원에서 해군헌병사령관에게 태권도 명예단장을 수여하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김용운 원장의 태권도 용품 후원을 시작으로 태권도 수련이 공식적으로 이루어 졌다.

태권도 용품 후원식에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김용운 원장과 국기원 해외파견 곽영민 감독이 참석하였고 특히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나영집 국장과 이윤우 주임이 한국으로부터 참석을 하여 큰 의미를 더했다.

육군 체육사령부는 사령관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고 태권도 보급관련 긴 시간 귀빈들과 함께

회의를 가지고 사령부 종목별 훈련 장소를 귀빈들과 함께 돌아보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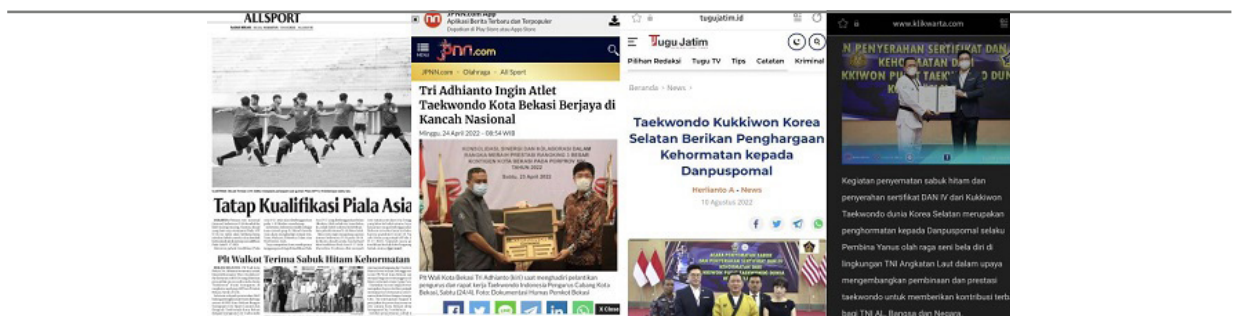
공군 특수전투사령부는 태권도 첫 승급심사를 개최하고 태권도를 의무 무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승급심사에는 국기원파견태권도사범 곽영민 감독과 브카시 시정부 태권도협회 아르와니 회장, 국가대표팀 타우픽크리스나 수석코치, 서부자와 주정부 태권도협회 심사위원장, 공군 특수전투사령부 장교들이 참석하였다. 공군 특수전투사령부에서는 태권도를 오랜 기간 보급해 오고 있으나 아직 의무 무도로 지정이 되지않아 국기원 파견 사범과 담당 장교와 긴 시간 논의 끝에 의무 무도로 추진하기로 협의를 하였다.

이로써 인도네시아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군에 태권도가 의무무도로 자리잡는데 시초가 되었고 앞으로 군부 및 생활체육에도 더욱더 많은 보급이 되길 기대하고있다.

현재 시정부 체육회와 함께 브카시 지역 국립학교에 태권도를 정규수업으로 채택시키기 위해 시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제공: WTN 월드태권도뉴스)



## 분쟁 해결 방법(4)

(전호에서 계속)

7.6.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가?

파산선고 청구를 관할하는 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는 지방법원이 아니고, 자카르타, 스마랑, 수라바야, 마카사르 및 메단, 이상 5곳에 만 설치되어 있는 상업법원(Pengadilan Niaga)이다.

7.7. 파산선고 청구 재판 절차

변호사에게 파산선고 청구 위임 - 상업법원에 등록 - 재판부 배정 - 청구자 및 피청구자에게 법정 출두 명령 송달(\*채권자, 검찰, 중앙은행, 자본시장 및 금융감독원 혹은 재무부장관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에게 법정 출두를 명해야 한다. 채무자가 청구하거나 파산선고 조건에 확신이 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법정 출두를 명할 수 있다. 심리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른다.

7.8. 파산선고 판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가?

상업법원의 법정 판결시한은 등록일로부터 최장 60일이다. 상업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측은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등록 시한은 상업법원 판결일로부터 8일 이내이다. 대법원 법정 판결시한은 대법원 등록일로부터 최장 60일 이내이다. 총 소요기간은 상업법원 판결에 복종하는 경우에는 최장 60일, 상업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항소하는 경우에는 최장 128일 이내이다. 그러나 통상 상업법원은 법정 처리 시한 60일을 지키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결은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7.9. 감독판사(Hakim Pengawas)

파산선고 청구를 심리한 재판부의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를 파산선고 판결문에 감독판사로 임명한다. 감독판사의 임무는 전체 파산 과정을 감독하는 일이다.

7.10. 관재인(Kurator)

전체 파산 처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관재인이다. 파산선고 판결문에 감독판사와 함께 관재인을 임명한다. 관재인은 관재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파산선고 청구자가 요청한 관재사를 재판부가 임명한다. 관재사의 기본 임무는 파산재산을 운영하거나 정리하여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의 채무를 상환하는 일이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7.10.1. 파산선고 판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국 단위 일간지와 관보에 파산선고 판결문을 공시하고 모든 채권 등록을 요청한다.

7.10.2.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한다.

7.10.3. 채권등록을 받는다. 담보권 보유 채권자, 국세채권 보유 국세청, 관세청, 관세 채권 보유 관세청 및 임금채권 보유 직원도 채권을 관재인에게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는 파산재산 매각 대금에서 상환이 제외된다.

7.10.4. 등록된 채권의 적법 여부를 감독판사와 함께 결정한다.

7.10.5. 파산재산을 매각한다.

7.10.6. 파산재산 매각 대금으로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의 채무를 법정 순위에 따라 지불한다.

7.10.7. 관재업무가 종료되면 감독판사에게 관재업무 종료 보고하고 신문에 파산 종료 공고를 한다.

7. 11.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시행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 시행은 파산선고일로부터 90일간 보류되며 90일이 지나면 담보권 보유자는 60일 이내에 담보권을 시행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담보권 시행을 하지 않으면 담보물 매각권이 관재인에게 넘어간다.

7.12. 파산재산 매각

7.12.1. 관재인이 파산재산을 매각하며 매각은 경매를 원칙으로 한다. 감독판사의 경매 허가를 받



아 채무부 산하 공매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를 한다. 관할 지방 일간지에 경매 공고를 해야 하며 경매 공고에 최저 매각가를 포함한 경매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7.12.2. 경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 경매, 3차 경매를 할 수 있으며 경매 최종 결정권은 관재인에게 있다.

7.12.3. 경매가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감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관재인이 수의 계약으로 파산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 7.13. 채무 상환 순위

파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한다. 지불 순위는 i). 관재인비, ii). 담보권 보유자의 채권, iii). 직원 급여, iv). 국세, v). 일반 채권자(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이다. \* 선순위권자에게 먼저 지불 후 잔액이 있으면 차 후순위자 순으로 지불하나 통상 채권으로 인정되어 등록되어 있는 채권자에게는 소액일지라도 지불한다.

### 8. 채무지불의무 연기선고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법원에 채무지불의무 연기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크게 봐서 셋이다. 첫째는 채무자 자신, 둘째는 채권자, 셋째는 관할 정부기관이다.

#### 8.1. 채무자 자신이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 자신이 자신에 대하여 채무지불의무 연기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1명이상(최소 2명)있는 채무자는 상업법원에 채무지불의무 연기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는 채무지급연기 청구서에 채무자 자신과 변호사의 서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채무지급연기를 청구하려면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 100%가 직접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결의하거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에서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결의하는 방법이 있다. 채무지급연기 청구 안건 임시주주총회의 성원 요건은 총 발행주식의 3/4(75%) 참석에 참석한 주주의 3/4(75%)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채무지급연기 청구서에 채무의 성격, 채무액 및 채무 증빙 자

료를 첨부해야 하며 채무지급연기 청구서에 채무자 자신과 변호사의 서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 8.2.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금전대여 채권자, 물품 혹은 서비스 제공 채권자, 건설계약 채권자, 임대차 채권자, Lease 채권자, Factoring 채권자 등 모든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및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임금 채권자도 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채무지급의무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지급의무연기를 청구한다는 것이 사회정서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제도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채권자가 채무지급의무연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반드시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 조사해야 하며, 채무자는 채무의 성격, 채무액 및 채무 증빙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며, 화의 청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화의 계획서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 8.3. 관할 정부기관에 신청하여 정부기관이 청구하는 경우

##### 8.3.1. 중앙은행이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중앙은행인 인도네시아은행만이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상업법원에 채무지급의무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은행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할지라도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상업법원에 채무지급연기청구를 직접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중앙은행에 해당 채무자 은행에 대하여 채무지급의무연기 청구를 신청하고, 중앙은행이 판단하여 상업법원에 채무지급의무연기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한다.

##### 8.3.2. 금융감독원이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증권회사, 증권시장회사, 은행어음 교환 및 보증기관 혹은 보관 및 해결기관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지급연기 청구를 직접으로는 하지 못하며, 금융감독원 만이 해당 채무자에 대하여 상업법원에 채무지급의무연기 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2022 임원찬조금 납부명단

기준 : 2022.1.1. ~ 11.28.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1	회장	박재한	PT. BUSANA PRIMA GLOBAL	20,000	
2	명예고문	김우재	PT. KOIN BUMI	5,000	
3	명예고문	신기엽	PT. HANINDO EXPRESS UTAMA	5,000	
4	명예고문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5,000	
5	고문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	
6	고문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5,000	
7	고문	신규태	PT. INDO SUNG IL JAYA	5,000	
8	고문	이호덕	PT. ROYAL SUMATRA GROUP	5,000	
9	수석부회장	김종현	PT. KOIN BUMI	10,000	
10	수석부회장	손한평	PT. DONG SAN HOLDING	10,000	
11	부회장	강선학	PT. ALPHA TOY INDONESIA	5,000	
12	부회장	강영균	PT. HELMINDO UTAMA	5,000	
13	부회장	김종희	PT. YOUNG JIN INDONESIA	5,000	
14	부회장	김창곤	PT. KODECO ENERGY CO. LTD	5,000	
15	부회장	박상갑	PT. VIDEX INDONESIA	5,000	
16	부회장	박성대	PT. HANJIN INDONESIA JAYA	5,000	
17	부회장	승범수	PT. KORINDO GROUP	5,000	
18	부회장	양태화	PT. BOSUNG INDONESIA	5,000	
19	부회장	이광옥	PT. YUNI INTERNATIONAL	5,000	
20	부회장	이정호	PT. HEONZ ROYAL JAYA	5,000	
21	부회장	이정휴	PT. GEE SAN INDONESIA	5,000	
22	부회장	이종남	PT. SINYOUNG ABADI	5,000	
23	부회장	이주한	PT. MEDISON JAYA RAYA	5,000	
24	부회장	정용완	PT. HUNG A INDONESIA	5,000	
25	부회장	최재혁	PT. HILON INDONESIA	5,000	
26	부회장	하재수	PT. ROYAL PUSPITA	5,000	
27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000	
28	자문위원	강희중	PT. SUNG TECHNOLOGY	1,000	
29	자문위원	고영철	PT. SHIN KWANG	1,000	
30	자문위원	김병철	PT. NINA VENUS INDONUSA	1,000	
31	자문위원	김소웅	PT. SCI	1,000	
32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000	
33	자문위원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1,000	
34	자문위원	김영주	PT. DEWA CITRA SEJATI	1,000	
35	자문위원	김태화	PT. EEN STEEL INDONESIA	1,000	
36	자문위원	사공경	한인신문화연구원	1,000	
37	자문위원	석웅치	PT. DAYUP INDO	1,000	
38	자문위원	엄정호	PT. ING INTERNATIONAL	1,000	
39	자문위원	오세명	PT. SUNG LIM CHEMICAL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40	자문위원	이승민	PT. YSM & PARTNERS	1,000	
41	자문위원	이진수	PT. SUNGBO JAYA	1,000	
42	자문위원	이진호	PT. JIN YOUNG INDONESIA	1,000	
43	자문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1,000	
44	자문위원	조규철	PT. DONG JUNG INDONESIA	1,000	
45	자문위원	채만용	PT. CITRA BINA MAJU JAYA	1,000	
46	자문위원	하연수	PT. SEOLIN NIAGATAMA	1,000	
47	이사	강기석	PT. GREEN MEDICA	1,000	
48	이사	강병찬	PT. GLOBAL INDOREKSA ASIA	1,000	
49	이사	강윤석	PT. PLATECH MOLD INDONESIA	1,000	
50	이사	강형구	PT. TUGU INSURANCE BROKERS	1,000	
51	이사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1,000	
52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000	
53	이사	김경준	PT. SINAR KENCANA ABADI INDONESIA	1,000	
54	이사	김동석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1,000	
55	이사	김문수	PT. QUTY KARUNIA	1,000	
56	이사	김민규	PT. WOORI CONSULTING & WOORI TOUR	1,000	
57	이사	김삼두	PT. CIPTA KREASI NADA	1,000	
58	이사	김서경	PT. ACCENTUATES	1,000	
59	이사	김영섭	PT. INDIGO MEDICAL	1,000	
60	이사	김영율	PT. SUNG CHANG INDONESIA	1,000	
61	이사	김종규	PT. ELIM TECH	1,000	
62	이사	김종화	PT. ART MOLD INDONESIA	1,000	
63	이사	김형근	PT. GAYA INDAH KHARISMA	1,000	
64	이사	김호권	PT. SUNSHINE TECHNICA INDONESIA	1,000	
65	이사	김화룡	PT. BANGUN MAJU LESTARI	1,000	
66	이사	김희중	PT. JKI CONSULTING	1,000	
67	이사	노예범	PT. SAM PUTRA INTI	1,000	
68	이사	노태진	PT. SILLA ENGINEERING INDONESIA	1,000	
69	이사	류재철	PT. HANKOOK CERAMIC INDONESIA	1,000	
70	이사	박광률	PT. SHINWOO GLOBAL INDONESIA	1,000	
71	이사	박주상	PT. TOU RUBBER INDONESIA	1,000	
72	이사	방진학	PT. HANSUNG INDOTAMA WORLD	1,000	
73	이사	백인현	PT. CKD OTTO PHARMACEUTICALS	1,000	
74	이사	서영률	PT. PRATAMA ABADI INDUSTRI	1,000	
75	이사	성예식	PT. F1-LOGIX	1,000	
76	이사	송영한	PT. KOFORM INDONESIA	1,000	
77	이사	신성철	PT. DAILY INDONESIA	1,000	
78	이사	신호진	PT. HANINDO EXPRESS UTAMA	1,000	



번호	직책	성명	회사명	금액(US\$)	비고
79	이사	안윤근	PT. YONG WOO INTERNATIONAL	1,000	
80	이사	안창섭	PT. PETRASAKTI MADYATAMA	1,000	
81	이사	양시완	PT. KISWIRE INDONESIA	1,000	
82	이사	유용선	PT. DAE HWA INDONESIA	1,000	
83	이사	윤수학	PT. DAE YOUNG APEX	1,000	
84	이사	이근대	PT. DONGBANG	1,000	
85	이사	이명균	PT. HIJAU ELEKTRONIKA INDONESIA	1,000	
86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000	
87	이사	이세호	PT. GORI GLOBAL INDONESIA	1,000	
88	이사	이소왕	PT. DOOWANG INDONESIA	1,000	
89	이사	이옥찬	PT. KORINA SEMARANG	1,000	
90	이사	이완주	PT. PERTIWI INDO MAS	1,000	
91	이사	이지완	PT. JIN YOUNG INDONESIA	1,000	
92	이사	이철훈	PT. INDO BOX UTAMA JAYA	1,000	
93	이사	이희경	PT. PRIME FREIGHT INDONESIA	1,000	
94	이사	임일택	PT. ACE MOLD TECH	1,000	
95	이사	장수봉	PT. YOUME INDONESIA	1,000	
96	이사	장영관	PT. SURYA MOLD TECH	1,000	
97	이사	정창섭	PT. DAEWOO LOGISTICS ASIA	1,000	
98	이사	조용재	PT. FOOD KOREA INDONESIA	1,000	
99	이사	조호신	PT. NEMO INDONESIA	1,000	
100	이사	최태립	PT. INTERNAT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	1,000	
101	이사	홍종서	PT. ARION TECH INDONESIA	1,000	
102	이사	황의상	PT. SEPULUH SUMBER ANUGERAH	1,000	

## 2022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납부 명단

번호	성명	금액(IDR)
1344	최세연	300,000
1345	이지선	500,000
1346	최재혁	300,000
1347	조호신	300,000
1348	이광욱	300,000
1349	이지완	300,000
1350	이진호	300,000
1351	김종희	300,000
1352	유용선	300,000
1353	김종화	300,000

번호	성명	금액(IDR)
1354	강병찬	300,000
1355	김동석	300,000
1356	김영섭	300,000
1357	박민철	300,000
1358	하연수	300,000
1359	윤수학	300,000
1360	이철훈	300,000
1361	이지선	500,000
1362	김병철	300,000
1363	김경준	300,000



## 2022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 송년의 밤

###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준 것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힘을 얻는 한 해였습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곁에 있는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2년 12월 7일 오후 5시
- 장 소 : 물리아 호텔 (Jakarta Senayan)  
Ballroom 2 & 3
- 초대가수 : 서지오, 지원이, 소유미  
(FC트롯퀸즈 3인방)



#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 전화번호 안내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시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국제전화.....001,008

## ■ 교통기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한국대사관.....021)2967 2555

영사과.....021)2967 2580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 항공사 안내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터미날3).....021)8082 2198/9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시내).....021)5031 1030  
(공항).....021)8082 2291~2

## ■ 우편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 각종 고장 문의

전기고장 문의.....123  
전화고장 문의.....147  
수도고장 문의.....021)5798 6555

## [한인외 외비 납부 안내]

# 개인회비는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 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사랑의 전화’를 통한 후원 등 여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한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박재한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관	2967	2580
주발리분관	361)445	5037
주아세안대한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 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신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골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시나르마스 BSD	0812 8689	2897

시나르마스 Thamrin 2993 7234

##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64497/7203356	
(Patra Kuningan)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골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	-----	------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렛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 건강식품/건강원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한국건강원	5579	6411
솔진성코리아	7278	8287
이름황성주생식	5296	1522

##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글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 방송사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 병원

관준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신승씨한방병원 7278 0563  
365OPEN CLINIC 위자야 점 2793 2625  
글라빠가딩점 2245 8015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외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르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글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보고르점 0251-831 5175  
무궁화 츠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다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뽕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빨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피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고포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뿌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쯔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뽕뽕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메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woori**

#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4587 8834  
HP: 0812 8092 5464  
Email: rodemtours@naver.com

## •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홍대포차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3 3315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골라빠가딩점)	2937 5435
소래 포구	8990 5051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양가든	2751 7370
한옥	0254-385 588
감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수하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찌까랑	2909 3000
산정 까북	3005 1650
유가네	2221 3392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기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름컨설팅 4585 4910/11  
럭시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복궁 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 1341 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 1514 997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더블루 레지던스(찌까랑) 0811 1979 170  
블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28051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학원/교육업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 9103 108  
에썸드라아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터미날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얏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골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반동 (지역번호 022)

반동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동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동렌트카 0858-1111-4000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고기고기**  
밴드(김군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http://dailyindonesia.co.kr)



## • 종교 단체

### <기독교>

교민교회	5576 7508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에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방교회	552 5164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까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반동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동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의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문회

###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례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운)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9 555 3456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웅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웅)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향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서종균)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1177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송)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재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승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 · 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 · 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현재 2022. 08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0812-1960-308 ]	회장	박 재 한	0816-825-931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발리한인회 [ 0822 1996 3355 ]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3	반둥한인회 [ 022) 200-2154 ]	회장	편 대 영	0813-2145-7997
		사무국장	박 병 봉	0813-2150-5500
4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공 자 영	0811-691-826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5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6	메단한인회	회장	홍 재 권	0812-8219-8638
		총무	안 의 현	0811-614-5469
7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 031) 568-8690 ]	회장	이 경 윤	0817-321-833
		사무국장	이 대 섭	0812-1767-9007
9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 024) 7648-2020 ]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총장	류 종 범	0812-2662-0902
10	족자카르타한인회	회장	유 치 호	0813-9251-5050
		총무	조 용 재	0815-4880-0256
11	즈파라한인회	회장	박 호 섭	0812-6666-3338
		사무총장	조 영 성	0813-9032-3355
12	땅그랑반뜰한인회	회장	채 만 용	0813-8621-5850
		사무국장	허 미 숙	0821-8166-6137
13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4	룸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5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총장	윤 상 원	0811-899-0101
16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THEP

TRASINDO

SAMINDO

STI Indonesia

CEP

PSG

SBS

DONGHAE

SIMS

Synergy for Tomorrow

삼탄이 **ST** International 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INTEC

SRT

ABM

Yeong Yang  
Wind Power

KIDECO